

지금 여기 성남

2020 마을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II

산성동

이야기



지금 여기 성남

2020 마을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II

---

산	성	동		이	야	기
---	---	---	--	---	---	---

---



성남시 2단계 정비구역  
신흥2동 재개발구역

신흥동 포레스티아  
구 신흥주공아파트

산성동

위례신도시

롯데월드타워

2020년 9월 7일, 산성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권리 배분을 결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와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이다.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고, 철거가 시작되면 한성사(산성동 1743번지) 지기하 님이 기억하던 1971년 산성동처럼 ‘그냥 산을 깎데기만 벗겨 놓은 형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50년 주기로 다가온 산성동의 재개발은 그래서 더 의 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재개발을 눈앞에 둔 2020년 산성동에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아카이브 활동이 진행되었다.

우선,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산성마을지기단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지원하여 산성동 마을 모형 제작과 <산성동을 기억하다> 전시를 진행하였다.

2019년 5월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 제정 이후 성남시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도 이곳 산성동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아카이브 사업을 맡은 사단법인 무형문화연구원은 산성동 기초조사와 주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주민들이 소장한 생활 유물을 수집하였다. 기증받은 유물 일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성남시립박물관에서, 산성동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성남꿈꾸는예술터의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이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되었고, 성남시 도시 개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 중인 다큐멘터리 <난장이 마을> 문유심 감독의 영상 작업도 산성동에서 진행형이다.

성남미디어센터의 2020 마을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전년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성마을지기단이 프로젝트 기획 및 섭외, 진행에 함께하였고, 성남미디어센터 소속 시민영상제작단과 드론촬영동호회, 그리고 전문예술가 배진환 작가, 박성진 작가, 이은숙 작가, 윤정 작가가 아카이브 작업에 함께하였다.

2019년 도시재생구역인 태평2·4동과 달리 산성동은 전면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이 올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지점이기도 하다.

자칫 다른 기관들과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중복된 작업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응원해 준 산성동 마을 주민 덕분에 올해를 산성동과의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만, 성남미디어센터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향후 마을 연계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2020년 12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섭다.

올겨울 오랜 터전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황량해진 마음에 <산성동 이야기>가 전해 줄 주민의 이야기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길. 그리고 새로 이주한 주민들과 과거를 이어 줄 영감이 되어 주길 기대하면서 산성동의 새 봄을 기다려본다.

프	로	젝	트	
진	행	일	지	

- 2020.06.1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산성동 아카이브 실무자 회의
- 2020.07.08. 한식당 다들림 영상 촬영
- 2020.07.09. 커피에반하다, 한성사 영상 촬영
- 2020.08.25.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아카이브 기획회의
- 2020.08.26. 산성동 원로회 인터뷰
- 2020.09.07. [화상회의] 실무자 기획회의
- 2020.09.16. 정호방아간 영상 촬영
- 2020.09.17. 고려세탁소 영상 촬영
- 2020.09.23. 전주약국 영상 촬영  
산성동 옛이야기 문동균 님 인터뷰
- 2020.09.24. 산성동 옛이야기 이영성 님 인터뷰
- 2020.10.07. 산성동 사진촬영 사전답사
- 2020.10.08. 산성부동산 영상 촬영
- 2020.10.12. 황소갈비살 영상 촬영
- 2020.10.15. 산성동 사람들 인터뷰 및 사진촬영
- 2020.10.21. 산성동 옛이야기 임옥순 님 인터뷰  
산성동 사람들 인터뷰 및 사진촬영
- 2020.10.16.~17. 항공촬영 1~2차
- 2020.11.13. 산성동 옛이야기 원고 작성, 삽화 작업
- 2020.11.18. 산성마을지기단 <산성동을 기억하다>展 영상 전시 참여

산성동 아카이브 영상 <오래된 가게>는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동체방송국에서 볼수 있습니다.  
www.snmedia.or.kr



## 목차

- 004 프로젝트 개요
- 006 프로젝트 진행 일지
- 011 산성동 옛이야기

### 산성동 사람들

- 040 지기하, 이언년      한성사, 산성동 1743
- 052 송순애              전주약국, 산성동 1358
- 064 엄익철              정호방아간, 산성동 1202
- 074 정재민              고려세탁소, 산성동 753
- 088 나광란              산성동 82
- 100 안창영              산성동 1427
- 112 이영옥              산성동 1928
- 120 양영빈              송이피아노, 산성동 2138

- 133 청년들의 산성동 기록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
- 159 산성동 연대기
- 169 산성동 개요





본 글은 산성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지명·상호·인명은 모두 실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대화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본 글에 등장하는 대화는 발화자의 오래된 기억을 토대로 하는 주관적인 서술이며, 작가에 의해 의도적인 발체·정리·수정·편집이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성남문화재단 윤혜숙 과장, 산성동 원로회, 산성마을지기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1. 소문 - 현재

2020년 10월말, 나는 산성동의 한 분식집에서 때늦은 점심을 먹었다.

뭘 먹으면 좋을까, 그러게, 간단히 때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언덕 길을 내려가던 참에 분식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거의 비어 있는 떡볶이 판, 비닐을 덮은 채로 열기를 뿜는 순대와 내장, 어묵 몇 꼬치가 꽃혀 있는 사각 어묵통 같은 것들이었다.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옆으로는 널찍한 도마가 있고 그 뒤로 길쭉하게 썬 당근이며 단무지, 시금치 무침 같은 김밥 재료들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입장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계산을 하려고 일어난 손님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입구에서 잠시 서성였다. 돈을 받고 인사를 건네는 주인 뒤쪽으로 두 개의 화구가 보였다. 각각의 화구에서는 국수가 삶아지고 있었다.

계산을 마친 손님이 나가고 우리도 자리에 앉았다. 점심때가 지났음에도 분식집에는 나와 내 일행 말고도 두 팀의 손님이 있었다. 테이블 너댓 개 작은 공간에 절반이 넘게 손님이 차 있는 셈이었다. 맛집이려나, 하고 기대를 품었다. 벽을 바라보고 놓인 테이블에는 할머니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떡만둣국 한 그릇에 김밥 한 줄을 나눠먹고 있었다. 나와 내 일행의 옆자리에는 산행을 다녀온 듯한 남성과 여성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김치와 단무지가 한 접시씩 놓여 있었다. 화구에서 끓고 있는 칼국수는 아마도 저들의 몫인 모양이었다. 우리는 떡볶이를 주문했지만 주인은 다 팔렸다고, 남은 양이 1인분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그래서 칼국수 두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시켰다. 좀 기다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주인은 화구 앞으로 돌아갔다. 나는 멍하니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다. 옆자리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들려왔다.

“이주비 쓸쓸히 받았죠? 사장님 부자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에이, 다 아는데.”

“그걸로 어디를 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 봐야지.”

그렇게 나는 산성동을 떠돌던 소문의 끝자락을 접했다. 형체가 없는 돈에 대한 소문 말이다. 2020년 10월 26일부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42번길 15-10 지역주민들이주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보다 나중에 알았다.

이 지역보다 앞서 재개발이 진행된, 횡단보도 하나 건너편의 신흥동에는 2020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분양가는 4억대였으나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는 10억 내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원주민, 조합원이라면 5~6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는 내가 이주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산성동의 분식집에서도 바라다 보인다. 부동산 이슈로 뜨거웠던 2020년, 재개발을 앞둔 산성동 골목에서는 이처럼 시대와 상황의 맥락에서 피어난 소문을 마주칠 수 있었다.

## 2. 소문 - 과거

분식집에 가기 전, 나는 산성동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어른들에게서 예전에 산성동을 떠돌았던 소문을 들었다. 모란시장 뒤편에 흐르던 탄천을 덮어 버리기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떠돌았던 소문이었다.

“……그 때가 성남시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진 게 있었어요. 나도 보진 못했고 말만 들은 건데, 듣기론 산모가 아이를 낳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애기를 순간적으로 고기로 본 거라 이거지. 그래서 애기를 삶아 놓고,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산모니까 어떻게 사나 해서 와 보니, 아주머니한테 내가 고기 삶아 놓았는데 먹고 가라. 그래서 보니까 애기가 그래 삶아져 있더라는 소문이 한번 퍼졌어요.”<sup>1)</sup>

1) 2020년 9월, 산성동 원로회 문동균 남(74)과의 대화 중에서

끓주림에 시달리던 산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은 문동균 어르신만이 아니었다. 아폴로11호가 달에 착륙한 1968년보다도 이전에 성남으로 이사했다는 이영성 어르신도 그 시절에는 참으로 흥흥한 이야기가 많았으며, “산모가 아이 죽였다는 그런 것들.”이 들렸다고 말했다.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이 식인을 했다는 류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괴담처럼 전해지고, 그 대상이 혈연으로 연결된 사이였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설정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문의 진위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굳이 따지자면 믿지 않는 편이다. 1970년대 초 성남 어딘가에서 끓주린 산모에 의한 영아살해-식인이라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한들, 끔찍해하고 진저리치는 것 말고 2020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내가 이 소문을 곱씹는 것은, 이런 소문이 나돌았던 당시 산성동의 모습이 그러지기 때문이다.

‘산모가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소문이 성남을 떠돌던 때보다 조금 앞선 1970년경,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청계천 철거민들에게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서울 관악구 일대, 지금의 마천동, 그리고 성남이었다. 주로 검정다리 부근의 거주자들이 성남으로 이주했다. 검정다리는 마장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다리였는데, 철도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는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놓은 다리였다. 썩지 않고 단단한 이 다리의 별명이 검정다리였다.

검정다리가 놓여 있던 그 시절의 청계천을 상상해 본다. 1960년대의 고속 성장기, 수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몰려들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연고 없이 상경한 노동자들이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았다. 가난하고 집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청계천 주변은 쉽고도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서울의 일자리가 밀집된 종로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 청계천은 집세도 매우 저렴했다. 이에 청계천변 집들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갈수록 뺄뺄한 밀도를 갖게 되었다. 소유권도 불명확한 집이다 집을 텃대고, 세입자의 세입자가 함께 거주하다 보니 화장실 하나를 다섯 가구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도 흔했다.

이에 서울시는 1970년경, 서울 근교의 토지를 매입하여 무허가 거주민들에게 분양하며 청계천을 철거하는 도시 정비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청계천의 철거민들을 보낸 곳이 바로 당시의 광주대단지, 지금의 성남, 소위 원도심, 다시 말해 2020년 10월 어느 날 내가 늦은 점심을 먹은 분식집이 위치한 산성동 재개발 지역과 그 인근 일대이다.

10억대를 넘나드는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비로소 입주를 시작하는 2020년의 모습과는 달리, 1970년의 산성동과 그 주위는 온통 황무지였다. 수도도 전기도 없는 빈터에 천막을 치는 것, 그것이 20대의 문동균이 기억하는 입주였다.



텅 빈 땅에서 천막을 치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건축자재를 구했다. 청계천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서 나온 나무들을 트럭에다 싣고 성남까지 이동하려면 천 원이 들었다. 그렇게 실어 온 나무는 황무지에 오두막집을 짓는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급조된 천막에서 네 식구가 살았다는 것은 지금의 감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다.

“겨울이 닥치다 보니까 난방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돈을 몇 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막에서 나가는 거예요. 땅이 전부 다 비어 있으니깐, 아무 데나 자리를 잡아서 바닥에서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 높이에 돌을 갖다 얹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깔아서 방을 만드는 거지. 네 식구나 세 식구가 잘 수 있는 그만큼. 그리고 방 밑에다 너비를 한 30센티미터 정도로 해서 굴을 파요. 그렇게 해서 연탄난로 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럼 연탄가스를 어떻게 하느냐. 함석을 주워 와서 돌돌 말아서 집 뒤편에다 그걸 꽂고 연탄가스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sup>2)</sup>

빈 땅에 천막을 치고, 혹은 빈 땅 아무 데나 돌과 슬레이트를 얹어서 스스로 집을 짓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이주정책은 1971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 사건’과 연결된다. 지금의 성남시가 수립되기 전,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광주군에 지어진 대단지에 이주한 사람들은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공터에서 직접 집을 짓고 생존해야 했다. 이에 이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조직하여 입주 사업을 주도한 서울시와 정부에 격렬히 항의했다. 정부에 대한 이주민의 분노는 과도한 토지대금 청구로 불이 붙었으며, 이에 이주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어렵게 서울시장과와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이른다. 화가 난 이주민들은 1971년 8월 10일, 서울시장과 이주민 대표단과의 만남 현장에 모여들었고 서울시장은 약속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모여든 군중들이 폭발하며 광주대단지 사건이 벌어졌다. 약탈과 방화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서울로 향하려는 군중과 전경 사이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 모든 일은 문서화된 기록으로 전해진다.

2) 문동균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 청계천에서 이주한 ‘빈민’들이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외양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1971년 10월 14일의 대통령 보고서에 따르면 청계천 철거민의 숫자보다 일반 입주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본래는 청계천 철거민의 이주터로 계획했던 곳인데, 왜 일반 입주자들이 철거민의 수를 능가하게 된 것이었을까.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주한 일반 입주자였던 이영성 어르신 이 입주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자.

“서울 천호동에 살다가 큰 수해를 만났어요. 광나루 다리에 바지선이 들어 받아가지고 한강 독이 무너져서 천호동, 성내동, 심지어 잠실까지도 피해를 봤을 거예요. 당시에는 여름이면 광나루 다리 아래가 해수욕장처럼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보트도 타고 장사도 했고 다리 밑에는 기와집도 여러 채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내려와서 처마 밑까지 물이 차면 집이 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 갖은 가재도구, 이불보따리가 물에 둥둥 뜨고. 그때 내가 열일곱 살이었는데 세월 가는 거 모르고 저녁까지 그 모습을 구경했지. 저녁때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가 봤던 곳이 개봉동하고 봉천동, 그리고 광주대단지 이렇게 있었죠. 서울 다른 데는 맘에 안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죠.”<sup>3)</sup>

성남이 이영성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려면 우선, 그 당시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부동산 열풍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 시절의 부동산 열풍 속에서도 광주대단지는 유명세를 떨쳤다. 서울에 정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곳은 서울과 근접하면서도 서민들이 어떻게든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입주 조건의 유리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2020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산성역의 신축아파트는 ‘잠실까지 13분, 강남까지 30분’을 내세우며 무난히 수천 세대를 채웠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를 세웠던 2020년의 재개발과는 달리 1970년의 입주에서는 오직 토지뿐이었다.

3) 2020년 9월, 산성마을지기단 단장 이영성 님(70)과의 대화 중에서

그러니 서울 청계천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광주대단지라는 이름에 끌려, 전국 팔도에서 온갖 사람들이 한 번씩 이 땅을 구경 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태평역 사거리부터 가천대 입구, 그 길가에 복덕방 거리가 생겨났다. 상가가 있는 자리는 전부 복덕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당시에 부동산은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라도 베니어합판 여남은 장만 있으면 조그맣게 복덕방이라고 간판을 써 놓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수많은 복덕방들은 광주대단지의 분양권을 사고팔았다. 열여덟의 이영성은 복덕방 거리를 드나들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백 원씩 분양권이 오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땅을 사 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졸라서 시골 고향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분양권 4개를 구입했다.

분양권 전매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뒤늦게 정부가 개입했다. 집을 짓지 않으면 분양권이 무효가 될 거라는 서울시장의 공고가 내려왔다. 다급해진 이영성도 급히 집을 지어야만 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분양권은 3분의 2 가격으로 폭락했다.

본인도 경제적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이영성은 당시의 부동산 시장이 지나쳤다고 느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덕방으로, 분양권 매매로 먹고 사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고 ‘저 사람들은 뭘 알았던 걸까? 도시물을 먹으면 저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아함도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청계천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을 비롯하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결국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1971년 8월 10일에 발발하여 3일에 걸쳐 파출소 등지에 대한 습격과 약탈, 방화, 서울로 향하는 이주민들과 전경의 대치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주민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약속시간이 지났으나 늦게나마 도착한 서울시장과 이주민 대표단과의 기나긴 협상은 의외로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서울시장은 이주민 대표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서울시장만이 아닌 내무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도 광주대단지 현장으로 내려와서 정식 사과를 하는 등, 전적으로 이주민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주민들은 자신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971년 8월 10일의 이영성은 이러한 보고서와 기록, 기사를 읽을 수 없었다.

“저는 그 현장, 출장소 불타는 거 하고 관용차 불태우는 거를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진 않고, 탄 다음에 봤어요. 그날 교회에 갔다 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교회가 성호시장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탔는데 사람을 태우기는 태우더라고요. 버스 출입구에서 젊은 사람, 과격한 사람들이 운전수를 볼모로 잡고 가는데 나는 도중에 내렸지요. 그날 비가 조금 왔던가 했어요. 그때 다들 모여서, 아마 무슨 단체가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다들 모여서 청와대를 가자, 항의하자는 거였어요. 가다가 나는 도중에 내렸죠.”<sup>4)</sup>

1971년 8월 10일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은 그날의 문동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만 전해지는 말을 들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수진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석을 못했어요. 주로 모인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을걸요.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신경 쓸 여유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도 옆에서 말만 듣고 신문만 보고 그랬지, 가담을 하진 못했어요.”<sup>5)</sup>

4) 이영성 5) 문동균

### 3. 소문에 가려진 과거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은 대체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후에도 한참이 지난 후에 서야 비로소 읽혀진다. 지금 여기의 황무지에서 수도와 전기 없이, 천막이나 빈 땅에 지은 가건물에서 연탄을 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항의보다는 당장 밥을 해 먹을 방법이 중요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1970년 겨울이었다.

“광주군에서 주는 밀가루 배급, 미국에서 지원해서 물품이 와요. 그러면 각자 불러 놓고, 한 집에서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못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큰 포대에다 물품을 넣고 거기다 한 사람씩 손을 넣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게 자기 복이야.”<sup>6)</sup>

그게 자기 복이야, 라는 젊은 문동균과 그 이웃들의 태도는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6·25 전쟁과 미군정과 군정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에 함께 휩쓸렸다. 산성동이 아닌 어디라도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내 복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1970년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집터는 물론 일자리도 없던 성남이지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만 했다. 이주민들 일부는 운 좋게 성남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비교적 연로한 사람들은 새마을 사업에 참여했고, 젊은 사람들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성남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종사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출입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 청계천으로 나가서 노가다를 뛰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평범한 입주자라고 해도, 성남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로 나가서 일을 해야 했다. 단 한 개의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에 통조림처럼 끼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다.

다행히도 문동균은 성남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는 산성동에서 흙을 나르는 일을 했다. 중장비로 흙을 파낸 후 그 흙을 손수레로 실어서 옮기는 일이었다. 쌓인 흙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면 될 일이기도 했으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명분이 없어지고 돈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개입하여 흙을 날랐다.

성남 원도심 중에서도 산성동은 비교적 입주가 늦은 편이었는데, 이영성은 수진리에서 처음 세를 살다가 산성동 부지가 정리되면서- 문동균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져놓은 토지였을 것이다- 산성동으로 이주했다. 문동균도 산성동으로 일을 다니던 당시에는 단대동에 거주했는데, 이후 산성동으로 옮겨 갔다. 때는 1971년 여름이었다. 이 해 8월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문동균에게 일어났다. 첫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 큰 애를 단대동에서 출산해서 갖난애기 때, 한 살 때 여기 산성동으로 넘어왔어요. 그 당시 면사무소 직원들이 얘기는 위험하니까 천막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때는 돈이 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천막 말고 보로꾸(블록)를 대강 쌓고 위에는 슬레이트를 이어 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산성동에도 그게 몇 개 있었어요. 거기는 비가 안 때리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걸 하나 지정해 주면서 우선 여기서 기거를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거지. 어린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데 마침 전주약국 앞쪽에 돈 있는 분이 집을 정상으로 지었어요. 기와집으로 방이 세 개인데, 우리한테 방을 하나 넘겨 준 거예요. 그 집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서 나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객지에서 고생한다 하면서 우리 집으로 와라, 하셔서 그곳에 가서 기거하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이 동네 토박이가 되었죠.”<sup>7)</sup>

6) 문동균

7) 문동균

산성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천막집은 오두막집에서 블록집으로, 그리고 기와집으로 정리가 되어 갔다. 하지만 먹고 사는 데 중요한 물의 문제가 해결 되는 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동균이 기억하기로는 사설수도가 처음 산성동에 등장한 것이 1973년이였다. 돈이 있는 개인이 사비로 수도를 설치해서 물값을 받았다. 한 동이씩 팔았던 물값이 얼마였는지는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물을 사러 가서 돈을 내면 안쪽에서 물을 틀어 주고, 물동이 가 가득 차면 수도를 잠그던 풍경은 지금도 그려 낼 수 있다. 그나마 흔치 않았던 사설수도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수터에서 식수를 떠오고, 빨래는 하천에 있는 빨래터를 이용했다. 목욕은 신흥주공아파트(현 포레스티아) 뒤 영장산의 흐르는 물에서 했다.

“나무가 크고 숲이 되어서 밖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숲 층이 높아 가지고 그 안에 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알까, 그렇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샤워하기 좋죠. 여자분들이 그 안에 계실 때 밖에다가 수건이나 옷가지를 하나 걸어 놓으면 남자들이 씻으러 올라가다가 아 저기 여자분들이 있구나 하고 돌아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샤워하고 그랬어요. 주로 현장에서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니까 많이 올라가서 목욕하면서 술 한잔 먹고 내려와서 생활을 했죠.”<sup>8)</sup>

물의 문제는 오랫동안 산성동의 삶을 힘들게 했다. 1976년에 산성동으로 이주한 임옥순 어르신에게도 열악한 수도시설은 산성동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1976년 가을에 여기로 왔어요. 전부 판잣집이었죠. 그때는 공동수도밖에 없었어요. 주민센터 쪽이며 저기 신축아파트 앞 사거리도 전부 산이었죠. 사거리에 우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물을 먹지는 못하고 거기서 빨래들을 하셨어요.”<sup>9)</sup>

서울 면목동에서 살던 임옥순은 남편의 친구가 해준 조언에 따라 성남으로 이주했다. 부동산에 밝았던 친구가 어느 날 성남을 다녀오더니, 성남 집값이 엄청나게 싸고 자신도 집을 하나 사 놓았다, 35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서울에서 세를 사는 것보다는 성남에서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임옥순과 남편은 산성동을 방문했다. 소문대로 35만 원대 집들이 많았다. 다만, 35만 원대 집들은 판잣집이었는데 부부의 눈에 든 것은 95만 원짜리 기와집이었다. 집주인은 자신이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서 지은 집이라며 어필했고 부부는 얼떨결에 비싼 집을 구매했다. 남편은 3년만 살다 나오자며 임옥순을 안심시켰다.

8) 문동균

9) 2020년 10월, 산성마을지기단 임옥순 님(73)님과의 대화 중에서



새벽 4시가 되면 임옥순을 비롯한 산성동 주민들은 공동수도 앞에 물통을 가져다 놓았다. 순번대로 물을 받아 가는데, 임옥순의 집은 공동수도에서 매우 가까웠기에 항상 물을 넉넉하게 받아둘 수 있었다. 새벽 6시경부터 수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임옥순은 대개 1번 순번으로 물을 받았다. 받아 온 물을 집에 가져오고 그 다음 순번에 물통을 또 가져다 놓고, 사람이 없으면 계속 물통을 가져다 놓으며 수시로 물을 받았다. 공동수도 외에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몇 명 있었다. 임옥순의 바로 아래집 주인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이사를 오기 전부터 미리 양해를 구한 임옥순은 아래집 펌프도 종종 빌려 썼다.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온 것은 임옥순의 남편이 약속한 3년이 지나서였다.



산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수도가 없어 고생하던 1970년대 초에 퍼졌다. 수도가 없다 보니 개천가에 다닥다닥 집을 짓고, 소위 하꼬방촌을 형성하고 살던 풍경이 당시 성남에서는 흔했다.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배가 고프는 산모가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생겨났다. 본 사람은 없고 들은 사람만 있는 소문이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광주대단지 사건 같은 큼직큼직한 일들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성남의 과거는 아프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흉흉한 말들까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산성동에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 직접 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소소한 부분들이 사람들을 이곳에 붙잡아 둔 것이다. 2020년의 외지인인 나에게는 끔찍할 따름인 소문이 1970년의 주민인 문동균에게는 그저 안타깝기만 했던 것처럼.

“그 소문을 듣고 저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생각했을 때 사람이 배가 고프고 미치면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했지만 그것은 직접 안 본 이상…….”<sup>10)</sup>

직접 안 본 이상, 나는 그저 듣고 또 들을 뿐이다.

#### 4. 소문에도 불구하고 - 과거

산성동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다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비교적 평범했다. 대한민국의 급격하고도 급속한 도시화는 성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판잣집이 벽돌집이 되고 기와집이 되는 건축 붐이 일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이영성은 중동 건설 근로자로서 해외 생활을 하며 산성동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고, 문동균은 건축업을 하며 쉬는 날마다 새마을 모자를 쓰고 나와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했다.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로 접어들던 시절,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들이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던 길은 정비되고 집집마다 수도가 놓였으며 도시가스도 들어왔다.

“정재의 씨라고 시의원하신 분. 그분이 시의원하면서 물탱크도 조성하고 도시가스도 들어왔죠.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무척 반대가 심했어요. 주민들이 정의원 집에 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왜 폭발시키려고 하느냐고. 그 당시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폭발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돌았지. 공법 그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sup>11)</sup>

성남으로 이주하고 곧바로 첫아이의 탄생을 보았던 문동균은 정착 이후, 많은 죽음을 마주했다. 연탄가스 사고가 무척 많은 시절이었다. 장례를 치를 일이 생기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지역 유지에서부터 통장들, 새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조기축구회 회원들까지 나서서 보조를 했다. 간혹 온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영구차에 관을 싣고 시골로 내려가서 혈육에게 인계해 주기도 했다.

10) 문동균

11) 문동균



“참 희한한 게, 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일주일 사이에 꼭 새 초상이 나는 거야. 여기서 나면 저쪽에서 하나 나오고, 또 이 밑에서 하나 나오고. 거 희한하더라고.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모르지. 돌아가시고 나면 병원으로 가니까.”<sup>12)</sup>

죽음을 회상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어조에는 그늘이 없었다.

“그 당시엔 어디 장례식하면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일 갔다가 저녁 되면 오시고. 아주머니들도 일 마치고 오셔서 설거지하고, 라면 끓여서 주고 그랬죠. 라면이야 지금도 좋잖아요.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술안주로 명태도 끓여서 내놓고. 그 당시만 해도 장례 치르는 게 힘드니까, 상주는 장례식 하는 걱정이 최고 컸죠. 그럴 때 대부분은 옆에 있는 이웃집에서 거들어 주고, 친구들이 거들어 주고. 전국 팔도에서 다 모였지만 동네가 아기자기해서 형제간보다 더 좋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사를 오면 떡도 나누고 다 그랬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보리밥을 해서 양재기에 비벼서 그냥 길 가는 사람들도 먹으라고 나눠 주고 그랬어요. 참 재미났었어요.”<sup>13)</sup>

참 재미난 동네였던 산성동. 수도도 없는 이곳에서 3년만 살고 나가려던 임옥순도 결국에는 산성동에 눌러앉았다. 이사를 갈 때까지만 참자며 임옥순을 달래던 남편은 기와집 마당에 장미를 심고, 대문에는 등나무를 키웠다. 등나무꽃과 장미가 어우러진 풍경은 임옥순의 말에 따르면 ‘엄청나게’ 예뻐다. 동네에서 장미집이라고 불렀다는 이 집에서, 부부는 꽃나무 때문에 가끔 다투었다. 식물을 좋아하는 남편은 무심한 임옥순에게 뭐가 그리 바빠서 꽃나무에 물도 안 주냐며 투덜거리곤 했다. 그것 말고는 부부 사이에서 싸울 일이 없었다.

임옥순이 꽃에 물을 주는 사이에 산성동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생기고 도서관이 세워지고 보건소가 들어왔다. 3년만 살고서 떠날 마음으로 들어온 동네에서 그렇게 40년을 쭉, 한 집에서 살았다. 살다보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졌다. 혹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도 괜찮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건 모르겠더라고요.”<sup>14)</sup>

큰 사건도 있었고 흥흥한 소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이다. 사소해서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낯선 이주지를 자신의 동네로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인근 복정동 약수터의 비화이다.

“우리 동네가 남한산성 밑에 위치하니까 약숫물이 많잖아요. 복정동 넘어가서 약수터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개발했어요. 그때 같이 간 게 박창일 씨라고, 복덕방도 하고 통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두 분하고, 그렇게 선배님 세 분하고 나랑 같이 ‘심심한데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고 놀러갔다가 물푸레나무를 본 거예요. 원래 물푸레나무 밑에서 수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무 밑을 파 보니까 역시나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가서 파기 시작한 거지. 조금씩 파서 웅덩이로 해 놓고, 고무 다라이에 구멍 뚫어서 놓고, 그렇게 약수터가 시작된 거죠. 약수터 가는 길은 산길이었는데 또 한 분이 매일 가서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현재 산성동 계신 분들이 약수터 잘 쓰고 계시잖아.”<sup>15)</sup>

광주대단지라는 역사적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약수터의 개발도 산성동에는 중요한 사건이다. 진위를 따지기에는 증빙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믿기로 결정했다. 본디 이야기란 머리보다는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니까.

12) 문동균 13) 문동균

14) 임옥순 15) 문동균

## 5. 소문\_미래

이주비를 고민하면서 칼국수를 끓이던 분식집 주인은 팔지 않겠다던 떡볶이를 그냥 드세요, 하면서 무심하게 던져 주었다. 맛이나 보라면서 어묵 꼬치도 하나 쓱 뽑아서 텅텅텅 잘라 주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분식집을 나온 나의 눈에 골목에 걸린 현수막이 들어온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산성동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신청 기간이란다.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재개발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하다. 오래된 이웃들이 하나둘 이사를 떠나기 시작한다. 훗날을 기약하지만 몇 명이나 재개발이 끝난 산성동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완전히 입주할 때까지 5, 6년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분들도 과연 다시 들어올는지. 나도 여기 다 지으면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다 지어 놓고 나면 내가 여기서 잠이나 잘 수 있게 될지 몰라. 내가 운명이 좀 길면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 알아서 해라, 했지요.”<sup>16)</sup>

4, 50년 전에 분양권을 사서 이사해 온 청년들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다시금 분양권을 산다. 산성동의 옛이야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이나 산성동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 복이지 뭐” 라는 순순한 말씀과는 달리 삶은 결코 순순하지 않다. 알면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상상하고, 약간이라도 희망적인 방향으로 기대를 걸어 본다.

2020년 10월 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산성동을 걸어 본다.



### 문동균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  
1971년 8월 산성동에 왔다.

건축업을 하며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명예 감시관, 청소년 선도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마을 활동을 했다.

16) 문동균

## 이영성님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1969년경 산성동에 왔다.  
건축업을 하며 중동에서 외국생활을 하였고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산성마을지기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옥순님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서울 면목동에서 살다가  
지인 소개로 1976년 산성동에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세 남매를 키웠다.  
현재는 산성마을지기단  
환경안전분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	성	등
			사	람	들

산성동  
사람들

88

74

100

52

64

40

112

120



5. 나광관



4. 고려세탁소 정재민



6. 안창영



2. 전주약국 송순애



3. 정호방야간 업익철



1. 한성사  
지키하, 이연년



7. 이영욱



8. 송이피아노 양영빈



금보

은석

한성사

시

계

장

734-10070

금보 은석 한성사

한성사, 산성동 1743  
수정남로286번길 18



지	기	하	1943년생	
이	언	년	1948년생	

###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결혼해서 조금 있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1970년도 1월 5일 결혼해서 여기 성남시에 들어온 게 그해 6월경이에요. 당시에 광주대단지, 모란단지를 홍보하면서 성남이 큰 도시가 될 거라고 떠들썩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20평씩 나눠 팔았고, 저는 20평짜리 두 개를 사서 들어왔어요. 모란단지 도면을 보고 번지 수 두 개를 사서 들어왔는데, 그게 속은 거였더라고요. 그걸 글썩 1년여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sup>17)</sup>

여기 이 집에 처음 올 때는 이 지역을 광주대단지라고 했어요. 광주대단지 단대동이라고 불렀지요. 이후 행정구역이 여러 번 바뀌어서 처음에는 1955번지였다가, 다시 1743번지, 이제는 수정남로 286인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하고는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여기 오던 당시 땅 파는 주주라는 분이 설계도를 그려 놓고는 수천 명은 족히 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요란하게 연설을 했어요. 당시 국회의원도 와서 찬조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주변에 충을 멘 경찰들이 둘러 서 있었어요. 그러니 광주대단지, 모란단지가 사기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당장 식구들 머물 곳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란시장 개천 위쪽, 지금 풍생고등학교 위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도 자체 측량을 해서 20평씩 잘라 그 위에 지었지요. 그런데 거기가 비행장하고 가까워서 비행 고도에 걸린다며 그제야 여기 산성동 땅을 주더라고요.

와 보니 세상에 그냥 산을 깎데기만 벗겨 놓은 형국이지 뭐니까! 호스 말뚝, 팻말만 박아 놔터라고요. 이렇다 할 자재도 없어서 엉성하게 집을 지어 가지고 겨우 두 식구 살 뚱 말 뚱하게 살았어요. 이 집이 세 번째 지은 집입니다. 한번 지어서 부수고, 사는 게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잘 지었어요. 그것도 부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 한성사에 대한 소개와 산성동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8년도 연말엔가? 한성사 허가를 냈어요. 그때부터 여기서 도장 파고, 시계 고치고 했는데 장사가 잘돼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보니 참 여러 가지 했네요. 전자제품도 고치고, 저기 전봇대도 타고 그랬으니 말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전봇대도 못 타고, 게다가 요즘은 도장 대신 다들 사인을 해서 도장도 잘 안 돼요.

성남시청하고 구청 생길 때, 그때 제가 그 도장을 다 새겼습니다. 도장이 제법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어느 단체든 도장을 함부로 못 맡깁니다. 제가 당시 도장인장협회 성남시지회 회장을 해서 시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가 시 승격될 때였어요. 시 승격되면 구청 생겨야죠, 동사무소 생겨야죠, 필요한 도장이 수천 개나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 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요. 밤낮 없이 일해 다 마치고 나니 얼마 뒤 초등학교에서 부탁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르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새겼나 싶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파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팠어요.

17) 모란단지 사건 1970~71년 성남시가 시제(市制)로 발전하기 직전에 김창숙(金昌淑)이 벌인 토지개발 사기사건. 김창숙은 1970년 모란개발단을 설립하고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투자금 1,330억 원, 인구 250만 명, 총 면적 42,000만 평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란시청을 비롯하여 6개의 구청, 100개의 동, 120여교의 각급 학교를 건설하겠다고 홍보했다. 이후 사기행각이 탄로 나고,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모란단지 입주자를 현재의 산성동으로 전입시킴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 사업자등록증

(과세특례자유)

등록번호 129-20-01007

1 상 호 한 성사 2 성 명 (대표자) 이 기 화

3 개업년월일 78. 11. 10 4 주민등록번호 430211

5 사업장소재지 (주사업장)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743

6 사업자의주소 상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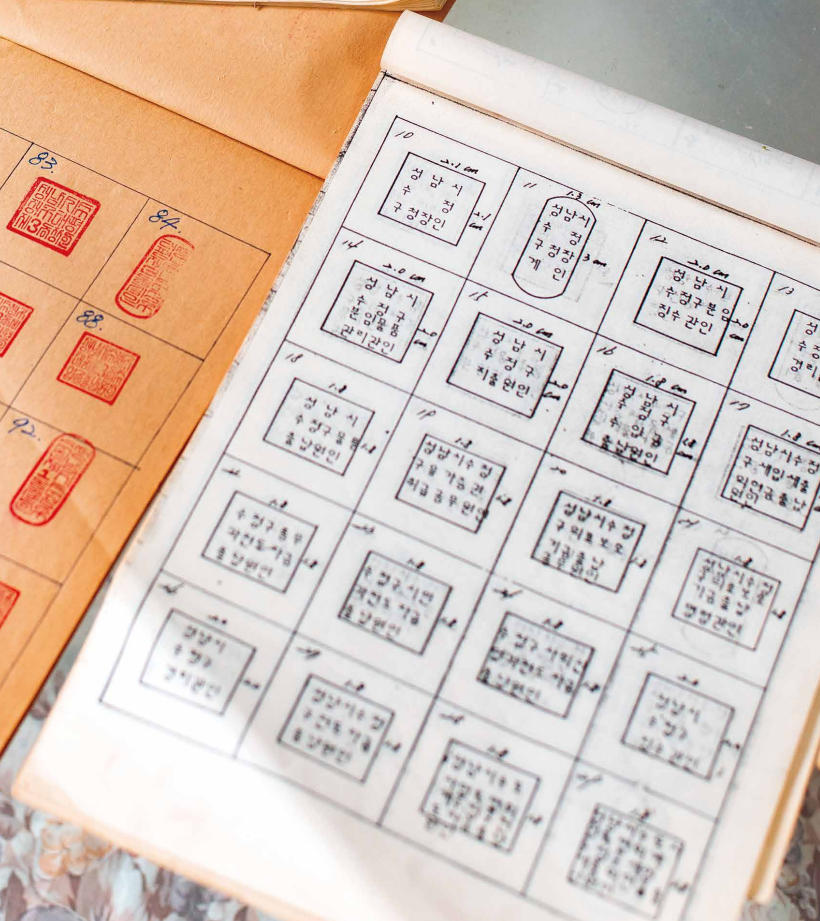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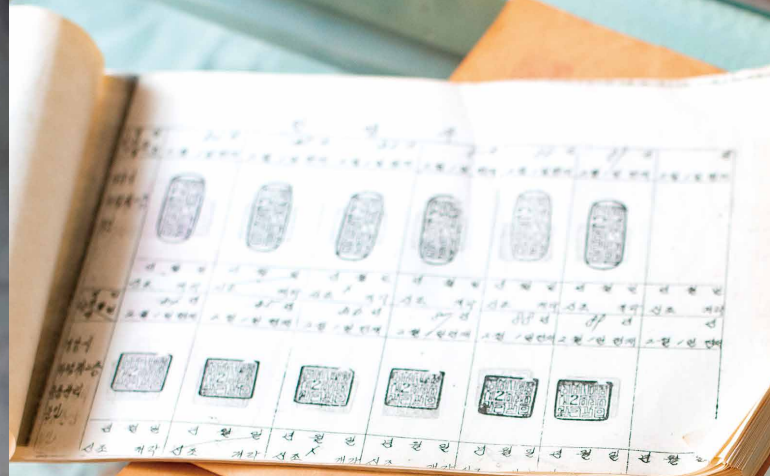
7 사업의종류 임대 서비스 종목 시계수리

8 교부 사유 경산 행정구역변경 (구번호:129-11-5723)

신청년월일	1990. 1. 3	1990. 2. 1	1991. 1. 17	92. 2. 22	1992. 7. 18
검정년월일	1990. 2. 1	1990. 2. 1	1991. 1. 17	92. 1. 22	1992. 7. 18
검정인					
신청년월일					
검정년월일					
검정인					

1989 7. 01

성남 세무서 장인







산성동에 학교가 많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는 나는 도장 새기고, 집사람은 돈 받고 그랬네요. 그때 목도장 하나가 500원이었는데, 중학생 애들 꺼는 300원에 새겨 줬어요. “너희는 얼마 안 쓸 거니까 조금 거칠게 새겨도 이해해라. 대신 300원에 새겨 주마.” 그러면서 1분에 하나씩 만들어 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단대동에서 산성동으로 행정동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당시 제가 여기 통장을 봤어요. 통장을 17년 정도 했어요. 통장 할 때 입사했던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제는 정년퇴임을 했어요. 통장하면서 골목 포장도 많이 했어요. 사촌동생 둘하고 힘을 합쳐 여기 옆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근방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도 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수도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72년도인가? 아직 이 근방에 전화가 안 들어왔을 땐데 제가 최고 일찍 놓은 것 같아요. 당시 번호가 2국 한자리였네요. 전화기가 우리 집 안에만 있을 뿐 사실 동네 공용 전화였어요. 전화가 오면 미안하지만 누구네 집 좀 바꿔 달라, 그러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내려놓고 그 집으로 달려가 불러서 바꿔 줬죠. 그렇게 전화 받으라고 이웃들한테 참 많이도 달려갔네요.

예전에는 여기서 복정동 가는 길이 없었어요. 복정사거리까지 리어카 하나 다닐 정도로 작은 길이 나 있었죠. 그때 쌀 한 가마에 한 6~7천 원 했고, 명동에 일할 사람들을 여기서 데려 갔는데, 기술자는 1,800원을 주고, 기술자 아닌 사람들은 900원, 1,000원 줬어요.

복정사거리로 가는 길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여기가 성남시에서 집값이 제일 쌌지 싶어요. 그러다 지하철 들어오고 나서 여기가 완전히 살게 된 거예요. 집값도 올라가고 장사도 괜찮게 되고, 은행동이나 상대원보다 더 살기가 편해졌죠. 먹고사는 것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좋고, 상가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고생고생하다 살 만하니까 떠나게 됐습니다.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두 사람 살기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는데 지금 여기를 떠나면 우린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산성동은 제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여기가 구시가지라 언젠가는 재개발을 하긴 해야 한다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재개발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저희는 재개발 아파트에는 안 들어오려고요. 앞으로 2년 정도 이주하고, 재건축이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6~7년 뒤에야 입주하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78세고, 그러면 85세가 될 텐데 다시 여기로 온다고 해도 동네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온다는 꿈은 아예 안 먹어요. 여기서 이사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산성동을 잊으려고 노력해야지요.

##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이 먹으니까 바람이 있다면 하루 저녁 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죽었다 그런 식으로 애들 고생 안 시키고, 본인도 고생 않고 그러기를 바라죠. 우리는 돈에는 아무 욕심 없어요. 이 집을 정리하면 몇 억 받습니다. 제가 하루에 5만 원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되잖아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10년 살아도 1억 8천밖에 안 나가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살 자신은 없어요. 아들이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올라가서 밑에 쳐다보면 까물까물해요. 나하고 같이 살던 분이 재개발 때문에 집을 팔고 수원으로 갔어요. 군대 선배인데 “아 동생, 절대 아파트에 이사 가지 마. 진짜 감옥이야. 감옥.” 그러네요.

산성동은 제2의 고향이에요. 부여에서 태어나 자랐고, 군 제대하고는 안양에서 좀 살았어요. 거기서 뿌리박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양에서 실패를 하고 탁 털고 나온 곳이 성남이에요. 여기 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살기 좋았던 곳이 산성동이다 싶어요. 여기 와서 애들 셋을 가르쳐서 시집장가 다 보냈잖아요. 그 애들은 또 아들 딸 낳고, 공부 잘하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또 우리 부부 건강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더 바라면 안 돼요.





전주약국, 산성동 1358  
수정로342번길 13-3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1974년에 결혼해서 1975년부터 성남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남편이 군인 복무 중일 때 결혼했는데, 그때 성남에 공군부대 공군장교로 근무중이었어요. 공군장교 복무기간이 4년 5개월이어서 여기서 한 2년만 약국을 하고 나가야지 한 게 46년째네요.

처음 전주약국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기와집에 단층건물이었어요. 여기서 2년 정도 하다가 바로 옆 편 의점 자리에서 약국을 좀 하고, 79년도에 이 자리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80년부터 한곳에서 지금까지 약국을 하고 있어요.





1975년 12월 전주약국

저희 건물이 79년도에 제일 먼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반 주택들은 85년 무렵부터 지었으니까요. 저희 짓고 나서 새마을금고 지었고, 새마을금고를 한 번 헐고 다시 지었어요. 그때 79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큰 건물은 저희 건물 하나예요. 인테리어는 몇 번 바꿨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조금 늘렸다가, 조금 더 늘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탔을 때 전주약국 하면 모르는 택시 기사분이 없으세요. 옛날에 을지로5가에서 들어오는 총알택시 있었고, 한참 있다가 잠실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생겼는데 택시 기사 분들도 전주약국 하면 알 정도였어요. 지금도 산성동 이정표는 전주약국이에요.

제가 처음 약국에 오니까 저 앞에서 빨래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국 앞은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때 버스는 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지 않고 그냥 사람이 꼭 차면 오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약국에 의존을 많이 했던 터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국을 해도 새벽에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응급실 가듯 저희 약국을 찾아왔던 거죠.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지나다 보니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아무 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정이 넘쳤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애기 젖 물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을 지으러 오세요. 저는 응당 빨리 젖을 빼고 약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몰라요. 애기가 젖 먹는데 젖을 뺀다 나무라시며 다 먹이고 약 지어 줘도 된다고 마냥 옆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약 지으러 들어가면 애기 받아 안고 얼러 주시기도 하고요. 음식을 하면 서로 갖다 주고 너무 좋았죠.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어요. 여름에도 20일씩 물이 안 나와서 기저귀를 가지고 저기 멀리 판교 천까지 빨래를 하러 갔어요. 우리 집 일하는 아가씨들이 정말 고생했죠.





옛날에는 외상장부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 한참 지나고 나면 약값 주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앞에 있던 쌀가게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쌀이 잘 나가고 겨울에는 밀가루가 잘 나간다고요. 영문을 몰라 왜 그러나 여쭙었더니, 여기는 일용 노동자가 많다 보니 여름에는 일이 많아 잘 버니까 쌀밥을 먹고, 겨울에는 벌이가 없어서 밀가루로 끼니를 해결한다 하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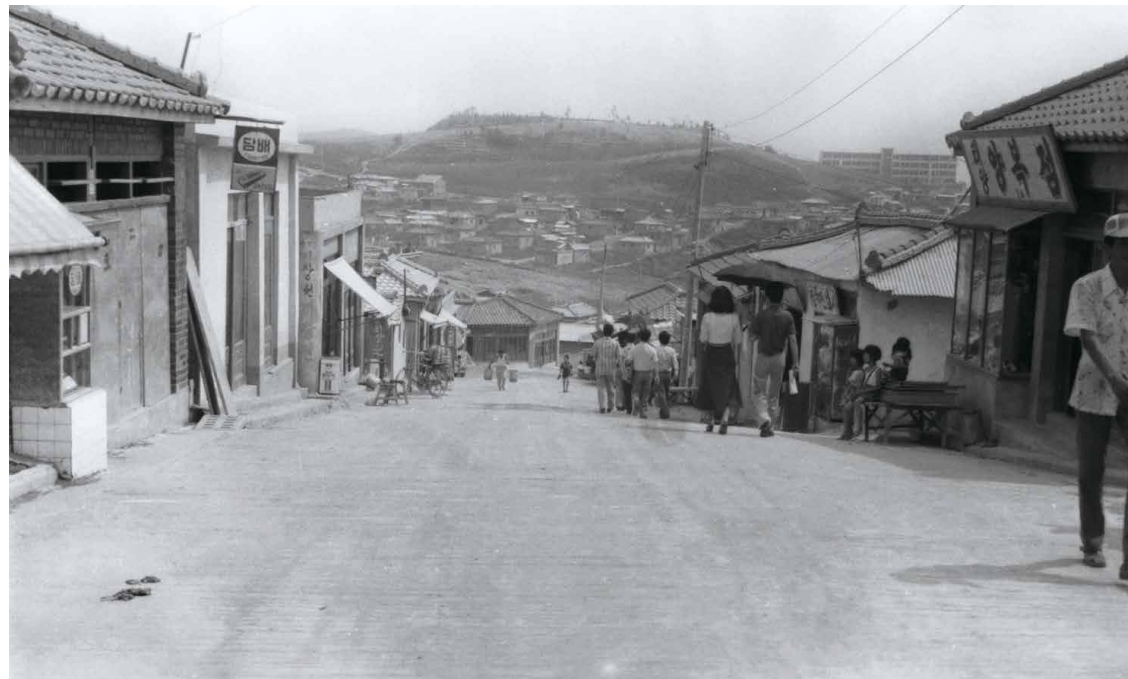
###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 단층 기와집일 때, 세를 살던 거라 약국에 방이 하나 딸려 있어서 거기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남편이 학위 공부를 해야 해서 바로 옆에 방을 하나 따로 얻어서 썼죠. 그런데 새벽에 남편한테 가 보니 자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연탄가스를 마신 거였어요. 난리가 났죠.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동치미 국물 떠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주가 좋다고 양주 가져오는 사람, 택시는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애가 닳아서 리어카에라도 싣고 가져시며 혈레벌떡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분……. 이렇게 정 있게 지냈던 데가 여기예요.

약국은 사랑방이라고 할까? 약을 짓다 보면 가족력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를 절대 율기치 않았어요. 며느님이 와서 한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절대 안 해요. 왔다갔다 얘기도 안 하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며느리 흉을 좀 봤다. 그래도 그 며느리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약 지어 갔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오래 있다 보니까 ‘약사님이 입이 무거워’ 그러니까 다들 와서 남편 흉부터 보기 시작했죠. 왜 자식도 흉 볼일 있잖아요. 그런 흉도 마음 편히 보게 되고, 그렇게라도 하소연하고 나면 속이 좀 풀리잖아요. 제가 들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지요. 산성동이 약간 떨어진 섬 같은 곳이에요.

이 동네가 딱 한 울타리처럼 자급자족이 되는 마을이에요. 생각보다 세대 수도 많고 이 동네에서는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멀리까지 시장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병원도 몇 군데 있고, 치과도 있고, 약국도 그렇고, 채소도 신선하게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1975년 산성동 전주약국 앞 골목 풍경. 멀리 신흥2동이 보인다.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약국을 더 오래했으면 좋겠지요. 다만 불편한 게 주차예요. 그 주차가 뭐지 싸움이 너무 자주 나요. 도로는 좁은데, 요즘은 또 한 가구에 차량이 두 대 있는 집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저희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차 딱지 요금으로 백만 원씩 내면서 약국 앞에 차를 세워 뒀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님이 오셔서 ‘주차할 자리도 해 주지 않으면서 주차 딱지를 끊는 건 부당하다’ 하면서 그 뒤부터는 주차 딱지를 안 끊었어요.

주차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서 재개발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들 안 하기를 바라셨어요. 이런 동네가 없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 찬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 산성동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기는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생애에서 제일 많이 산 곳이 여기 산성동이니깐요. 지금도 오며 가며 들르시면 손주 애기부터 끝이 없으세요. 손수 가꾼 농산물도 나누고, 뭐든 서로 나누지요.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앞서요. 분양을 받긴 했지만 확실히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지어지면 들어와야지 하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이 분들을 그대로 보며 살 수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 같이 살았던 동네 분들 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호방아칸, 산성동 1202  
희망로534번길 40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1976년도 봄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 안식구를 74년도에 만나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바로 서울 사당동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사당동에서 분식집을 하다가 구로공단으로 가면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구로공단에 가서 분식집을 했는데 거기서 여의치 못해 여기 사는 지인 소개로 산성동에 왔어요. 그때가 76년도였어요. 바로 방앗간 이 앞에 이사 와서 우리 안식구는 분식집을 했어요. 하지만 그 벌이로는 안 돼서 저는 또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지요. 그러다 1978년도에 우리 큰딸을 낳았어요. 그 무렵에 이 방앗간을 인수했지요. 방앗간 주인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77년도에 방앗간을 열고 그 이듬해 제가 인수를 한 거죠. 그때는 이렇게 건물이 안 좋았어요. 옛날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동네가 다 그랬어요. 길도 질퍽질퍽하고 수돗물도 안 들어오고 공중변소도 없었고…….

정호방아간 소개와 그 당시 산성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건물은 90년도에 지었어요. 처음에 이 동네 들어올 때는 보증금이 적어서 일수돈 얻어 가지고 보증금 만들어서 월세로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했죠. 이쪽 한쪽만 있을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고생하면서 구입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90년도에 옆 건물을 구입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쪽은 세 주고, 여기 일부에서만 방앗간을 하다 여유가 생기면서 확장을 했지요.

처음 산성동 들어왔을 때 길은 포장도 안 돼서 질퍽질퍽하지, 수도는 안 들어오지, 물도 우물에서 길어다 먹어야 하지 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집에 펌프를 묻으면서 겨우 집집이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떡 하려면 그걸로는 안 되니까 떡 할 때 필요한 물은 길어다가 썼어요. 명절 때는 기계를 많이 돌리니까 보일러 보충시키느라 물이 자주 필요했어요. 특히 설에 눈이 펑펑 오고 그럴 때는 아주 죽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님은 100미터는 죽히 되게 줄 서서들 기다리는데 기계는 멈췄지, 물은 길어와야지, 눈이 엄청 와서 길은 미끄럽지……. 그래도 그때는 명절마다 쌀가루 짱으러 오고 떡을 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명절이면 새벽 3~4시에야 일을 마쳤어요. 힘은 들어도 덕분에 이만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명절 때 떡 해 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해놓은 떡만 조금씩 사 가지요.

80년 중반에야 수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가스 들어오고요. 그전에는 다들 연탄으로 방도 덥히고 음식도 해 먹고 그랬어요. 글썽 집집마다 화장실도 없었어요. 저기 지금 수정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변소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전부 거기 화장실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게 하루 시작이었지요. 그러니 급한 사람은 큰일난 거죠.

###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려웠었던 거. 바쁘다 보니까. 우리 딸 79년도 돌 지나서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는 가게가 아주 좁았어요. 우리 아들이 네다섯 살 먹었을 때 아침밥을 상에 차려가지고, 국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방에 밥상을 들이 밀었어요. 우리 아들놈이 밥상을 쭉 땡기니까. 그전에 접는 상이 있었잖아요. 접는 상. 고놈이 접히면서 엎어져 버린거예요. 엎어져 가지고 우리 딸래미 다리가 디어 버렸어요. 바쁘다보니까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도 제일 마음에 걸려요. 또 우리 안식구가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이후엔 제가 위암 수술을 했고, 그때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진창이었죠. 그게 제일 고생이 많았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골이 많이 잡혀 가지고 영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좋아요.

태어나기만 고향에서 태어났지 여기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애들 다 낳아 키우고, 손주들까지 여기서 다 봤으니깐요. 우리 딸이 북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손녀들이 그 학교에 다녀요. 아이들이 후배가 되는 겁니다, 후배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잘 지나와서 여기 집을 장만해 사니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섭섭해도 받아들여야지요.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재개발에 찬성했어요. 언제까지고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 나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이것 참 막상 이사를 가려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정 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제일 힘이 듭니다. 그전에 돛자리 하나 깔아 놓고 막걸리 바가지로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집에서 빈대떡이라도 부치면 골목 사람들 죄다 불러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을 주고 살았는데 어찌 헤어지나 싶습니다. 1차 재개발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하나 둘 이사를 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때 거의 이사 가서 이제는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동네 단체회도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원로회 활동하면서 한두 개 봉사하는 게 다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든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지는 생각을 미리 좀 했더라면 찬성을 안 했을 텐데 이제야 후회가 돼요. 이제 나이가 팔십이 다 돼 가는데 언제 다시 친구를 사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안식구도 여기 친구들이 많은데 아주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막 뭐라 하고 그래요. 동네 친구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디 같이

가서 살 만한 데도 없는 노릇이고 아주 갑갑해요. 우리 안식구는 요즘도 그 말만 하면 눈물을 툭툭 흘려요. 몸이나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그리워하다 그게 이제 마음에 병이 돼서 올까 봐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우리 동생들이 여기 다 살아요. 처제들이랑 네 처남들이 다 성남에 사는데, 우리 막내 처제는 저 위 산성동 재개발 제외 지역에 사니까 이사를 안 가요. 우리는 가야 하니까, 헤어져야 하니까 안 좋은가 봐요.

방앗간은 상가 입주권을 못 받았어요. 상가 단지를 많이 짓지 못하네요. 그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계속 산성동에서 가게를 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평수가 나오지도 않고 분양대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임대도 못 내죠. 그냥 다시 살려고 아파트 신청만 해둔 상태예요. 공사하는 동안 어디 다른 곳에 가게를 얻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들어요. 지금 세도 비싸고, 이주비도 조금 준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주비나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살다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는 이주비 가지고 어디 가서 가게 얻지를 못해요. 방이나 얻어서 있으려나.

### 앞으로 바람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우리 애들 잘되고, 손주들도 몸 건강히 잘 크고,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남은 생 잘 살다 가면 그것에 만족하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고려세탁소, 산성동 753

수정남로305번길 6-1

정재민	1947년생
-----	--------

###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1980년 4월예요. 그전까지는 단대2동에서 양복점을 했어요. 지금은 거기가 금광동이 됐죠.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어렵고 영업도 부진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정형, 내가 창곡동에 가서 건축일을 하는데 같이 가서 해 보지 않겠어?” 경기도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위장병이 속을 썩이던 터라 건축일처럼 몸을 쓰며 좀 움직여 주면 그 병도 낫고 하겠다 싶어 산성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당시 제게는 산성동이 강남이었네요.

### 고려세탁소와 당시 산성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로 오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니 우리 집 2층 슬라브 치고 문지방 세우던 날,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시절이 여간 어려웠어야지. 집은 지었는데 세도 안 나가고, 세가 안 나가니 돈 들어올 데가 없고. 그러다 옛날에 같이 양복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형, 세탁일이 수수하고 괜찮아. 또 섬유를 다뤘던 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야.” 그해 9월경에 세탁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섬유를 다루니 일은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손님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시 손님들은 아무 오염이든 세탁소에 맡기면 다 지워진다, 그렇게들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당시 세탁업이 정말 열악했어요. 아무나 옷 빨아서 다려서 주면 세탁소였으니까요. 우리 동네에서도 구멍가게 한쪽에다 다림질 판을 만들어 놓고 다림질을 하면서 손님을 맞기도 했고, 또 연탄장사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다 그걸 차리고 세탁업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탁업을 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세탁업을 좀 정립해야겠다 생각해 협회를 설립했어요. 먼저 성남, 광주, 하남. 그 당시 하남시가 광주군의 신장읍이었어요. 여주, 양평, 이전까지 묶어서 동부지역 관할을 조직했어요. 그때 협회 일을 하면서 공중위생법 공표(1986년)에도 힘을 좀 보탤어요.

양복 짓는 일을 해서 수선이 아주 자신 있었어요. “기술이 좋네!” 하며 다들 참 좋아했어요. 그러던 차에 옛날 우리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던 사람이 우리 세탁소 앞을 지나다 우연히 나를 만나서는 옷감을 가져다주며 옷을 지어 달라 했어요. 그 옷을 받고 나더니 또 아는 사람 몇을 더 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옷 짓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바깥에 8미터 도로 앞에 조그만 점포 하나를 얻어 나갔어요. 양복일이 돈이 좀 되자 배우려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그 당시 신흥주공 후문 횡단보도 앞으로 점포를 옮겼어요. 1천만 원 보증금에 74만 원 월세를 주고. 그때는 복개가 안 됐을 때, 지하철도 생기지 않았고요. 그 당시 다림질도 할 줄 모르던 우리 집사람이 혼자 세탁소 일 보느라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세탁 일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갖고 오는 크고 작은 불만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섬유 만지는 일을 하고, 또 협회에서 드라이클리닝 교육도 하고 하니까 분쟁이 적은 편이지요. 하지만 나도 시대 흐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게 프랜차이즈 세탁소로 가는 것이 많고 옷 빨래 형태도 드라이클리닝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반은 일반 빨래, 집에서 수세, 소위 물빨래 가능한 옷들을 흔히 입어요. 기름에 빠는 거하고 손빨래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세탁업이 사양 사업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세탁업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없고 업소도 줄고……. 이 동네도 열여섯 군데 되던 것이 지금은 일고여덟 개 정도로 절반 겨우 남았어요. 반대로 프랜차이즈 세탁소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는 현장에서 세탁을 안 하니 세탁소가 얼마나 깨끗해요. 쾌적한 장소에서 컴퓨터로 맡기고 찾고 하니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죠.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 우리는 밀릴 수밖에요.







###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동네가 그때는 산성동이 아니고 창곡동하고 단대동이었어요. 수정보건소 자리가 다 황톳길이었고 길이 포장도 전혀 안 된 상태고, 그래도 다른 동보다 일반 도로가 제대로 설정은 됐지만 포장까지 되지는 않았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복개가 된 것 같아요. 산성역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개울이 모여서 이 앞에 큰 개울이 흘렀어요. 건너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고, 예비군 훈련반다 보면 하수구로 오픈수 내려오는 것도 다 보이고, 어린 애들 소변도 보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빨래도 하고, 어린애들 물장구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무렵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반장 일을 좀 봐 달라 하더라고요. 당시 이 동네는 아주 외졌어요. 다들 형편이 어렵고 동네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젊은이들은 쿠웨이트, 사우디로 돈 벌러 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았는데 소일거리가 없어 늘 군데군데 가마니 퍼 놓고 옷놀이를 했어요. 놀이 끝에 막걸리를 잡숫고는 의견 충돌이 생기면 몸싸움까지 이어졌어요. 그런 분위기는 안 되겠다 싶어 질서 계도를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쯤 되겠지요. 1989년부터 시작해서 24년 활동했는데, 회원이 30명 돼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나가서 남한산성, 사기막골 가서 질서 계도하고, 토요일마다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도덕성회복운동 그런 행사에 참여했어요.

상거래 질서도 살폈어요. 모란시장에 가서 되 검사도 했어요. 당시 되를 속여서 파는 일이 많았거든요. 적게 들어가게 되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득 담아서 파는 식으로. 그런 실량 검사를 직접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반장 일을 보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오고,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골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혼자 세탁소 일이다 양복점 일까지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동장님이 반상회 수범 사례를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회 반상회 수범 사례 발표를 했어요. 도로포장 안 된 것들, 골목골목 다니며 길에서 마당으로 흘러들어온 흙탕물 퍼낸 것들, 반상회 한다고 하면 꼭 집집마다 찾아가서는 “반상회 나오세요. 반상회 나오세요.” 다 인사를 하고 다녔던 일…….

글쎄 내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발표 끝내고 내려왔는데, 다른 동네 동장님이 오시더니 이리시더라고요. “나도 그 동네 사는데 정 반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힘든 줄 모르고 했는데, 내가 애를 많이 쓰긴 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상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날 집사람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금을 받는다면 비행기 태워 줄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날 밤 집에 와서 최우수상 받았다 큰소리를 쳤어요. 집사람 좋아하는 거 보고 싶어서 시상식 끝나자마자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구시청 앞에 있는 여행사 가서 처가가 있는 김해공항행 비행기표 예약을 미리 해 두었거든요.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1년쯤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모였을 때, 사람들이 ‘재개발해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가 되고 성남시도 재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5년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아, 우리 동네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들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이 모여 조합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인감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나도 재개발 동의서 써 줘’, ‘나도 인감 해 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후 점점 재개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서 재개발팀하고 도시개발팀하고, 용역업체하고 약 3년 동안을 주민센터에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어요. 청사진을 만든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상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 몇 세대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논의했죠. 그렇게 해서 2014년 4월 16일에 민영으로 재개발을 한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안타까워요. 여기는 20평 분양지가 많아요. 20평 분양지 가진 분들이 간신히 장만한 그 건물에 세를 줘서 그 월세 수입으로 사는 분들이지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유한 주택의 감정 평가, 종전 자산 나온 것을 보면 어디 가서 세 한 칸을 얻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깝죠. 저도 역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고요.

산성동은 저한테 제2의 고향이에요. 정말 아늑하고 공기도 좋고,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얼마전부터 동네가 어수선했어요. 원주민들은 이사 가고 나면 대부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퍼센트? 아니 7퍼센트 내외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거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는 형편이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젊어서 타국이며 외지에 가서 고생고생 돈벌어 겨우 이곳에 집을 장만해서 나이 들어 내 집에서 좀 편히 살자 싶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억지로 밀려난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 산성동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산성동은 가까이 단대공원이 있고 남한산성 인접해 있고 교통은 산성역이 있어 공기 좋고 교통 좋고 흔히 말하는 낙원이지요. 제가 처음에 와서 반장일 할 때 저희 산성동 주변은 다 산이었어요. 지금은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주택을 짓고 공장을 짓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산이었고, 황토에 잔 소나무가 즐비했어요.

아, 산성동!

다시 살아도 또 살고 싶은 산성동이에요. 또 하나 소망이라면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희희낙락 함께 살면서 오랜 정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생활안전 센터

031) 758 7

일방통행 ↑

산성 푸전

고려세탁 734-5575

국가공인기능사 의집  
고려 컴퓨터클리닝 734-5575

고려 컴퓨터클리닝 734-5575

선경 지물포 733-1276

수정 부동산

고물상 물절지 고미파 010-9265-2738

선경 지물포

물상

송이집

귀금속

CU

린다 헤어

인사이드

15년  
100%  
4888-

10

뽕장찌개



산성동 82  
수정남로 340-4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82년도에 결혼하면서 살기 시작했으니 그해 9월부터네요. 중매쟁이 소개로 만났는데, 참 우리는 인연이다 싶어요. 이 동네 사시던 중매쟁이 할머니가 김이나 생선, 두부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에도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잘 팔아 주고 잘 대해 드리니까 엄마랑 친해지면서 제 중매를 서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소개시켜 주려던 이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한국폴리텍대학인데, 옛날에는 기술학교였어요. 거기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글씨 잡자기 독일로 기술을 배우러 떠난 거예요. 지금 남편<sup>18)</sup>을 대신 소개해 준 건데 결혼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기술학교 교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인연이다 싶지 않아요?

6월에 만나서 9월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나이가 꽤 있었고, 나도 스물다섯이라 많이 늦었거든요. 그때 내 친구들은 스물 하나 둘 때 거의 결혼을 해서 내 마음이 조금했던 것 같아요.

산성동에 살던 집들과 그 당시 이야기해 주세요.

결혼하고 처음에 한 집에서 여덟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어머님, 형님네 네 식구, 시동생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요. 남편은 결혼하고 3개월 같이 살다 해외엘 나갔어요. 결혼하자마자 큰 애를 가졌는데 남편이 바로 떠나고 시댁 식구들과 살려고 하니 힘들기도 했지요.

그때 저희가 살던 집 말고도 집이 두 채가 더 있어서 시집 와서 살던 집을 팔고, 다른 한 채로 또 온 가족이 옮겨와서 살았어요. 이사할 때가 임신 8개월 무렵이었어요.

18) 나광관님의 남편은 산성마을지기단 이영성 단장이다.







이 집으로는 2007년에 이사했어요. 남편이 집 짓는 일을 해서 지금 서른 여섯 살 큰 애가 세 살때 남편이 처음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서 좀 살다가 거기를 팔고, 또 다른 데 집을 지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이 집에서는 아주 정착을 했네요. 이 집에 10여 년 살면서 우리 큰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 탈 없이 잘 살고 하는 게 부모는 가장 고맙고, 즐겁고 그렇지요. 이 집에서는 자연을 보면서 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졌어요. 단점은 여기가 꼭대기잖아요. 한 번씩 내려갔다 올라오면 아주 힘이 들어요. 거의 등산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산성동에서 제일 높은 데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내 동네다 싶고, 마음의 고향이다 생각해요.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산성동에서 더 오래 살았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더 남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동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산성동에서 6년 동안 통장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80대 노부부가 계셨는데 자녀가 없더라고요. 자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잃었네요.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서로 더 의지하며 사시는 거 같았어요. 통장을 그만두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벗을 해 드리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했는데 할머니가 뇌경색이 와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남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 시기에 캐나다에 사는 딸이 아이를 출산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런 죽음을 선택하신 거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큰일을 당하시고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우리 집에 먼저 연락을 하셨다면서 그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하셨어요. 그 일로 우리와 더 가깝게 지냈죠. 나도 시부모, 친정 부모 다 돌아가신 후라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캐나다 간 사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해외 근무 시절 선물로 사온 시계와 향수

산성동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한다니 좋아요. 차가 많아지다 보니 어디 나가려고 하면 길에 차를 주차해 놔서 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들끼리 정이 멀어지는 건 아쉬운데,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나쁠 수도 있죠.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네가 발전하려면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재개발되는 집들 짓는 동안 먼지도 많이 날릴 거고, 소음도 많고, 공사 차 매연이며 위험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건 감수해야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편리하고, 주변 정리도 돼 깨끗해질 테니까요.





산성동 1427  
수정남로291번길 5





###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직장이 가락시장이고, 지하철역 위주로 찾다 보니까 여기가 딱 좋더라고요. 서울 방배 동에서 태어나 거기서 계속 살다가 성남으로 온 지 14년 정도 됐어요. 20대 후반부터 가락시장에서 상추 도매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같은 일을 해요.

### 지금 거주하는 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집은 산성동에서 세 번째 사는 집이에요. 이 집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성남에서 처음 살았던 동네는 은행동이었어요. 겨울에 동파 사고가 났는데 바로 고칠 수가 없어서 급히 이사한 데가 산성동이었어요. 수정도서관 옆에 반지하 집이 산성동에서 첫 번째 집이네요. 거기서 2년 정도 살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이었는데, 집에 자잘한 문제라도 생기면 집주인 아저씨께서 바로바로 오셔서 친절하게 다 봐주셨어요. 두 번째 집은 도서관 아래 3층 집이었어요. 그때 가락시장 저희 단골손님 중에 미수금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새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런데 돈이 밀리니까 외상 일부를 대신 새를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서 새를 키웠던 기억이 나네요.

##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아내가 천주교 집안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흥동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산성동 신자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보통은 친목이나 신앙 모임을 했어요. 그때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뽁뽁이가 나왔는데 그걸 신자 어르신들 덕에 설치해 드렸어요. 만두도 같이 빚어서 갖다 드리고, 비누를 직접 만들고 팔아서 생긴 이익을 모임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천주교에는 성인 빈첸시오를 기리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빈첸시오회'라는 봉사 및 신심 단체가 있어요. 신흥동 신자 열 명 남짓이 모여 시작했는데, 초기에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꿈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였는데 뒤늦게 시작한 거죠.

빈첸시오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 가운데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드렸는데, 아이들이 커서 졸업하고 취직하니 까 온 가족이 같이 별게 되잖아요. 여유가 좀 생기니까 본당 빈첸시오회에 도리어 후원해 주고 계세요.

당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도와도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서 힘든 때도 있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다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였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나 찾아보고, 어찌 할 수 없는 것은 버티면서 기도하고, 우리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청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 낸 덕분에 이제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도 잘돼서 밝게 사회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일들이 지금껏 가장 인상 깊이 남아 있는 일이에요.

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동네 저장강박증을 앓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 둘 집에 짐을 가져다 쌓아 놓다 보니 집 안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심지어 부탄가스도 더미 속에 있더라고요. 악취도 심하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주변에서 이웃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도통 치울 기미가 없으셨어요. 저희가 그 집을 두 달 동안 드나들면서 정리를 했네요. 처음에는 문도 잘 안 열어 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떡도 사 가고, 마실 것도 사 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낯을 서서히 익혔어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어른께서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뵈었어요. 그때마다 짐을 빼 내올 수 있을 만큼씩 들고 나왔지요. 그렇게 두 달을 했더니 3분의 1정도 치워지더라고요. 그 무렵 어른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마침내 집 안을 싹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치매를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를 배정받으셔서 도움을 받고 계세요. 주거 여건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일할 때도 참 뿌듯했어요.

가락시장 구조는 품목에 따라 경매 시간이 달라요. 상추류는 오후 5시 반경에 경매를 시작해요. 그래서 5시 출근해서 장사 끝나고 들어오면 새벽 3-5시쯤 되죠. 그럼 좀 자고 일어나서 동네 돌아다니며 활동을 해요.



## 반려묘 이야기

제가 약간 고지식하고 내성적인 데다 재미가 엄청 없어서 평소에는 좀 차갑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반대예요. 엄청 밝아요. 아내의 엄청 밝은 성격 덕분에 제가 좀 부드러워져서 장사도 나아지고 이웃과 어울리는 관계도 나아졌어요. 아내한테 많이 배워요. 아내와 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식구는 저희 부부 그리고 반려묘 몽치, 초원, 형도 이렇게 예요. 몽치는 아홉 살 된 중년의 여성인데 아직 한창 때인 줄 알고 아주 그냥 도도해요. 몽치만 키울 때는 서로 간의 깊이를 잘 몰라서 같이 살지만 서로 엄격하게 다른 영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간난쟁이 반려묘들을 살리자고 데리고 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독거어르신 맥 지하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두고는 떠나 버렸는데, 어르신이 못 키우겠다며 갓 태어난 고양이 세 마리를 박스에 담아 내놓으셨어요. 하나는 죽고 두 아이를 데려다 지금 이렇게 같이 사네요. 집안 벽도 같이 사는 반려묘들을 배려해서 우리 부부가 직접 꾸몄어요.

얼마 전 아내가 다리를 많이 다치는 바람에 아내가 하는 일을 제가 많이 도맡았죠. 아내가 하는 일들을 하루 이틀, 한 개 두 개 하다 보니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몽치와 형도, 초원이 한 번씩 심하게 아팠어요. 아마 아픔의 순간을 같이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한 공간에서 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자기만의 세상을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아픈 아내의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이해했듯이, 아픈 자기들을 보살펴 주는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이 곁을 주고, 자기 세상을 내주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 산성마을지기단과 마을 기록, 그리고 재개발

마을지기 활동은 2018년 가을에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안했어요. 마을기획단이라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하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저희 산성동은 주민 모임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저도 천주교 신자들만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발대식 이후에 분과를 구성했는데, 환경안전분과, 교육문화분과가 성인분과이고, 이외에 유아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있어요. 마을 기록은 교육문화분과에서 나온 의제예요. 교육문화분과에서 캠핑, 마을 축제 사업도 제안해서 작년에 야외영화제도 하고, 마을 기록 관련 교육도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활동들이 잘 안되다가 봄 지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마을 기록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마을 기록 얘기했을 때 너무 어르신들 얘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호응할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른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마을을 가꾸고 성장시켜 오셨기에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산성 마을의 과거와 현재, 옛 세대와 후세대가 연결돼 있음을 깨달았어요.

옆의 신흥2동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주한 이후 기록을 모으려 하니까 자료를 찾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산성동은 이제 막 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사는 모습을 담아 두기도 좋은 것 같아요. 산성동은 참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는 학교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세 개씩이나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전에는 보건소도 있었어요. 바로 뒤에는 단대공원이 있고요. 구청도 가깝고요. 또 남한산성도 바로 연결돼 있고, 영장산도 있고요. 한 동네에 뭐가 많이 들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을 기록 사업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들으면서 정리된 것인데요. 광주대단지 시기 산성동은 안쪽에 위치해 발달이 안되서 집 가격도 주변에 비해 무척 저렴했어요. 교통도 나쁘고, 하수 시설도 안 좋고, 물도 멀리서 길어다 먹었어야 했어요. 목욕할 곳도 마땅찮아서 남녀가 같이 가서 남자들은 위에서, 여자들은 아래서 씻고 그렇게 살았대요.





### 산성동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사 가며 헤어지는 것이 저렇게까지 애틋할까? 진짜 고향도 아닌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분들한테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었어요.

마을지기단이 처음에 마을기획단으로 출발할 때 '주민들끼리 잘 어우러져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재개발 후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대요.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융합이 돼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주민들과 문화를 만들어 보자. 마을 기록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입주하신 분들과 잘될지 모르겠어요.

산성동은 정이 넘치는 따뜻한 동네예요. 이 어르신 세대가 만든 공동체 의식이 새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마을지기단이 주민 속에서 함께 하다가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어렵다 보니 끈끈한 정으로 똘똘 뭉쳐 출발했고, 힘을 모아 하나하나 쌓아놓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가득 찬 것으로 되었던 거죠. 산성동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주를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 다른 데 살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아직 산성동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마을 기록을 해야 하니까요.

재개발로 집값이 엄청 올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로또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산성동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적은 보증금에 수십만 원 월세로 사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도 약자인데 모르는 곳에서 새로 적응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재개발은 좀 폭력적이다 생각해요. 어떤 의미로는 광주대단지가 반복되는 거라고 봐요. 아쉬움이 많지만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노력하려고 해요. 그걸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르신들이 여기 계실 때까지는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요.





산성동 1928  
수정로332번길 28

제이오케이

종합  
에어컨  
전문점  
745-4800

CCTV 녹화장  
\* 녹화 기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녹화 대상 : CCTV 녹화 대상 구역  
\* 녹화 방법 : CCTV 녹화 센터  
\* 녹화 비용 : CCTV 녹화 센터  
\* 녹화 문의 : 02-779-1212  
\* 녹화 신청 : 02-779-1212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28





###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여기 들어온 지는 10년. 처음에는 옷가게 하러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태평동 살았는데 민속주점을 하다가 쫓딱 망했어요. 그때 아는 분들이 이 동네가 장사가 잘된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해서 들어온 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빚 갚고 나니까 가진 건 없고 어찌 오나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아들이 똑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과외해서 그런저 중형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걸 팔아 여기 겨우 들어왔어요.

제가 특이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쁜 옷만 팔고 싶었는데, 이 동네 분들한테는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옷 가져오면 안 팔려서 제가 다 입었지 뭐예요. 결국 옷가게를 접었어요. 그런데 옷가게를 하는 덕에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마당 밭이 됐어요.

옷가게 이름이 '공주 옷가게'였어요. 그 이름을 지은 사연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 아들이 군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 훈련소 데려다 주고 오는데 마음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그때 우리 집에서 옷을 사 입으면 모두 공주같이 되라는 마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공주는 걱정 없이 그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공주병에 걸려서 이름이 그런 줄 알지 뭐예요. 게다가 제가 특이한 옷들을 즐겨 입으니 더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영원한 공주가 됐어요. 이 동네에서 공주 하면 다 알 정도니까요. 저희 공장 이야기할 때도 공주네라고들 말들 해요. 지금은 옷가게는 안 하고, 공장을 해요. 가방 포장이라든가, 부분 작업 이런 거요.

꽃을 가꾸는 주인으로 유명하세요. 이 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집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꽃을 키울 생각으로 사거리 모퉁이의 골목이 널찍한 이 집을 선택했어요. 지금 꽃들이 예쁘게 있는 이 공간이 처음 왔을 때는 전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를 모아 두는 아저씨가 계신데,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누구도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 제가 여기 와서 살려고요. 좀 치워주세요.” 했더니 그 길로 바로 치워 주셨어요. 실은 그 아저씨가 우리 옷가게 앞을 지나다니실 때마다 제가 항상 커피를 드렸어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대접했지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신한테 하도 잘해 줘서 의리로 치워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들이 가만히 보다 예쁘면 들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CCTV를 확인해 보고 슬며시 “다시 갖다 놓아주세요.” 하고 말씀 드리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가져가요.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지켜 줘요. 누가 꽃을 보며 서성거리면 “꽃 흠쳐가려고 그러냐?” 호통을 치시죠. 꽃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가 없지요. 밤에 자다가도 비 오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요. 꽃들 화초들 비 맞추면 좋거든요. 또 너무 맞으면 안 좋으니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들여 놓고 그랬어요. 이 꽃들이 제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은 가시다가 예쁜 꽃 볼 수 있게 해 주어 고맙다고 커피 사 주는 사람 있고, 사탕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봉투에다가 ‘어느 꽃 좋아하는 나그네가’ 라고 적어서 꽃씨도 놓고 가고, 예쁜 화분이 생기면 갖다 주고…….

이 집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꽃을 내 마음대로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쁜 꽃이 있으면 천안, 여주, 이천 어디든 가요. 세곡동은 거의 매일 가요. 차에 꽃을 싣고 팔러 다니는 꽃 아저씨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와요. 내가 나갈 때까지 도통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공장에까지 찾아와서 저를 꼭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더 아쉬워요. 여기 재개발돼서 더 이상 꽃을 키울 수 없으니까요.

산성동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동네 와서 지금껏 느끼지 못한 걸 많이 느꼈어요. 시골 같은 정이 있어요. 한창 옷가게 인테리어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부침개를 부쳐 오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밤늦도록 손님들이 계속 오면 혹시나 내가 다칠까 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 옆에 앉아서는 문 닫을 때까지 지켜 주셨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여기 와서 처음 경험을 하니 이 동네도, 이 동네 언니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언니들 모시고 대장놀이 하면서 살아요. 결혼해서 호수에 사는 아들이가 자꾸 호주로 오라는데, 내가 싫다고 싫다고 하니깐 개가 하는 말이 “여기 오면 대장 놀이 못할까 봐 그래? 엄마 꼭 동네 대장 같아.” 그러더라고요.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싫어요. 떠나기 싫어서요. 그래서 저 위쪽 재개발 제외 지역에 꽃을 키울 수 있는 집이 있나 찾고 있어요. 이 많은 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싫어요. 내년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공장 일하다 힘들면 꽃을 보고, 그러면 힘이 나고. 그게 일과예요. 공장도 꽃들도 이사 가려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어찌하나 싫어요. 몇 사람은 제가 간다는 데로 따라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 산성동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이제는 삭막하겠지요. 여기 원주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도 떠나고 이런 곳도 다 없어지고, 여기도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상대원 1동으로 공장들이 많이 옮겨가더라고요. 거기 사람도 많고요. 그리로 가야 하나 싫어요.





송이피아노, 산성동 2138  
희망로534번길 10

### 산성동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결혼 전에는 포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남편 직장이 성남이어서 결혼하면서 성남에 왔어요. 그때가 스물여섯이었어요. 어디에 신혼집을 마련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신흥2동에 있던 피아노 학원을 인수했어요.

성남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니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와서 집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보고 '성남이 정말 사람이 많구나' 했어요. 그때 신흥동에 다단계 판매 사무실들이 건물 지하에 많았어요. 지방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합숙을 하며 지냈거든요. 시골에서 상경하는 분들이 서울로 못 들어가면 여기에 주저앉아 사셨어요. 성남이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성남시 2단계 정비구역으로 신흥2동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2018년 6월에 송이피아노를 신흥동에서 길 건너 산성동으로 옮겼어요. 신흥동에 있을 때도 아이들 대부분이 산성동 소재의 북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때도 산성동에서 오는 아이들도 많아서 친숙한 곳이니까요.

게다가 수정도서관 바로 밑에 교회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제가 작년부터 관리하게 되어 산성동 주민, 복지관 선생님들, 도서관 선생님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운영하던 카페 커피쿠미(산성동 1975번지)는 이번 달 영업을 종료하고, 피아노 학원 한쪽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합니다. 오전엔 바리스타, 오후엔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거죠. 제가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요.



카페 리모델링 중, 오전에는 카페, 오후에는 피아노학원으로 운영 예정이다.

신흥2동 재개발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덩치 큰 사람들이 와서 무엇 하나 원래 위치대로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힘들게 했어요. 앞에 살던 사람들이 싱크대를 베란다에 놓고 썼는데 그걸 다시 떼서 제자리에 놓으라고, 도어락을 다느라 손잡이를 없앴는데, 도어락 떼고 손잡이 찾아서 달아 놓으라는 등……. 지적하는 대로 다 해 놔야 보상이 나오니 힘들어도 해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 아마도 '이사 갈 거니까 안 쓰는 것들은 다 두고 가자' 하실 텐데 고정돼 있지 않은 모든 물건은 다 갖고 나와야 해요. 그거 완벽하게 사진 찍어 증명하기 전까지는 보상금 못 받으실 거예요.



산성동과의 인연이나 이 동네의 좋은 점을 말해 주세요.

99년도에 수정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왕팬이었어요. 저희 큰아이는 도서관이 키운 아이고, 덕분에 참 잘 자랐어요. 주말에는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곤충을 좋아했는데, 거기 곤충 전시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 새롭고 좋았어요. 그 뒤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산성동은 워낙 물가가 싸요. 앞서 재개발을 시작한 신흥2동에는 여기 골목 같은 곳이 없었어요. 채소가게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십억 분식이라든지, 저기 할머니 닭강정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땅콩도 엄청 듬뿍 넣어 주시고요.

한군데 오래 있다 보니 그 익숙한 느낌이 좋아요. 아마도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성남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여기서 태어났으니 우리 애들 고향은 당연히 여기고요.



피아노 학원을 처음 하면서는 쉼 살까지 해야지 했는데, 막상 50세가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60세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생각이 또 달라지겠지 싶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그냥 여기서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다시 찾아와요. 한 여자아이는 경찰관이 돼서 제복을 입고 온 거예요.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다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송이피아노'라는 간판 하나 보고 '아직 선생님이 계실까?'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저를 보고는 "선생님 아직도 똑같아요!" 하며 그렇게 좋아해요. 군인이 돼서 오는 남자아이들도 있고, 결혼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등록하기도 오고, 스승의 날이 되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오고,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져요.

저는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한때는 애들 밥도 해 먹였어요. 개학하고 3월 한 달 급식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애들 밥을 해 먹였어요. 엄마들이 일이 생기면 제가 데리고 자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그게 다 사랑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은이라는 아이는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이 너무 줄어드니까 글썄 직접 다니면서 애들을 막 데리고 오지 뭐예요. 아직 어린 제 동생을 등록시켜 달라고 엄마를 조르고요. 일흔네 살 된 할머니 제자도 있어요. 스페인 순례길도 다녀오실 만큼 정정하세요. 가실 때마다 엽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 주실 만큼 다감하시고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그분 돌보면서 손녀딸도 돌보세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짹짹 시간을 내서 다하세요. 그분을 보면서 삶을 많이 배워요.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지 한참 돼서 아쉬워요.



## 산성동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학원 앞에 카네이션 마을<sup>19)</sup> 간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카네이션 마을 행사를 할 때 저희 학원 전기를 끌어들 쓰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테이프도 끊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어요. 그때 여기는 어르신들 중심의 마을, 노인이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 때라 좀 아리송했어요. 재건축이 되면 노인 분들은 여기를 떠나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신흥2동은 공영개발이라 원주민들을 많이 배려했던 것 같아요. 주거 이전비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일일이 연락해서 보상받도록 해 주었고요. 그런데 산성동은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또 신흥2동 주민들에게는 워레신도시에 이주 단지를 제공하였고, 돌아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거기 계셔도 된대요.

여기 산성동에도 너무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예요. ‘저분들 어디 가서 사실까?’ 카네이션 마을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면 적어도 저분들한테는 지내실 곳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9) 카네이션 마을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여가활동,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정하였다.

## 산성동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제가 살던 신흥2동은 원주민이 3, 40프로 돌아올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과연 원주민이 몇 프로나 들어올까요? 신흥주공아파트에 제가 살 때는 어른들이 정말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후 지금은 3, 40대가 주를 이룬대요. 아마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깨지는 거고요. 지금 사는 동네처럼 정 이런 거는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산성동에는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니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을 때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사업 막바지에 중국인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무서워져요. 아마 안쪽에 계신 분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도서관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떠난 사람들에게 옛 추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 여기 다녔지?” 하면서요. 송이피아노도 그 도서관 같은 추억의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 추억에 남아서 어찌다 이 마을을 찾았다가 우리 학원 앞을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할머니가 된 저를 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신하종합설비  
731-8382  
011-663-8382

피아노

송이PIANO  
since 1996  
732-1128

송이  
피아노  
732-1128

음악이론  
이피아노  
T.732-1128  
#  
찬송가, 반주법

송이피아노  
since 1996 T.732-1128  
#  
피아노  
T.732-1128

주지금지

STOP  
30



# 청년들의 산성동 기록,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

글 / 김동현



성남꿈꾸는예술터 전시

## 1. 프로그램의 시작, 여러 곳이 힘을 모으다.

2020년 가을, 산성동의 옛 영성여중 자리에 성남꿈꾸는예술터라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들어섰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산성동을 기록하며 사진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열렸다.

'2020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산성동과 근처에서 사는 청년들이었다.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사진 리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강의를 들었다. 사진이 모였고, 마을 곳곳에서 전시를 했다. 전시공간은 산성동행정복지센터 로비,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입구, 산성동 중심가 상가 건물이었다. 모두 주민 생활의 중심지들이다. 11월 말에는 마을 사진전들을 종합하는 전시를 성남꿈꾸는예술터 로비에서 열었다.

형식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진가에게 청년들이 사진을 배우고 전시회를 여는, 별다른 게 없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주민들의 관심을 얻은 이유는 일 년여 동안 계속된 산성동 마을 기록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이 재원 확보와 행정 지원을 맡고, 주민 조직인 산성마을지기단이 청년들을 모아 진행을 돕고, 작년부터 주민들의 마을 기록을 돕던 사진가가 청년들과 함께 사진 작업을 했다. 산성마을지기단 운영을 돕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공 기록물을 생산하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했다. 마을 생활의 중심지 세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기관들과 주민 조직이 함께 움직인 덕분이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의 참가 인원은 7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참가자를 예상해 10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끝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공공 기록물 생산의 가치를 이해한 참가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은 이 프로그램을 공익 활동으로 보고 자원활동가 모집 채널로 청년들을 모았다. 사진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기록 봉사를 하고 싶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전시

## 2. 프로그램의 성격

### 강의보다 리뷰

일반 강의 형식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리뷰 수업 방식으로 진행했다. 리뷰 수업에서는 각자의 사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이론과 사진 작업 사례 소개는 리뷰 중간에 참가자 사진의 맥락에 맞는 이론과 사례를 준비해 공유했다. 첫 시간에는 평소 촬영한 사진들을 리뷰하면서 각자의 성향을 파악했다. 세부 관심사와 이미지의 품질은 단기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세계관이 담긴 이미지 성향은 바꾸기 어렵다. 짧은 기간 동안 사진을 생산하고 정리해서 발표까지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뷰를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참가자의 장점을 흡수한 사진을 선보이는 참가자들도 생겼다. 첫 시간에 평소 촬영한 사진들을 리뷰하면서 사진 강의와 리뷰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이미지 생산에 익숙한 세대여서인지 개별 사진의 형식적인 수준이 꽤 높았기 때문이다. 한 장의 사진을 잘 찍어 내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사진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채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사진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참가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 이미지 생산과 공유의 다양한 방법 소개

이미지 기록과 공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와 기획자를 초청해서 이미지 생산과 공유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배웠다.

20여 년 전부터 성남을 기록한 미술가 김태현 작가는 기록의 개념, 성남이라는 도시의 성격, 기록과 공유 과정에서 겪는 사회 부조리, 경계를 짓지 않는 기록 형식 상상 등을 이야기했다.

산성동 인근 태평동에서 공공미술 기획 영역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기획자인 김은영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대표도 초청했다. 김은영 대표는 주로 주민 생활공간 속에서의 예술 작업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 성남꿈꾸는예술터 1층 로비에서 로비와 마을에서 열리게 될 사진 전시회에 대한 제안도 했다.

### 3. 서로를 존중하는 사진

‘잘 찍은 사진 한 장’을 만들어 내는 데에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을 공유했다. 집중해서 관찰하고, 천천히 촬영하고, 차분히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이미지를 낚아채듯 촬영하지 말고 대상을 존중하면서 기록하자고 했다.

작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딱딱한 일정에서 인물을 촬영하면 흠쳐보기 식의 사진만 생산할 수 있다. 사진의 가치를 기록 과정에서 증명한다는 자세를 유지하자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사진 아카이브의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다.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는 일찌감치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맞는 사진을 일정량 이상 촬영하는 쪽으로 과정 설계를 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진 기획의 요소를 많이 덜어냈다.

사진가 필립 퍼키스는 “지금의 사진은 90프로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아이디어로 끝납니다. 사진가는 아이디어를 갖고 주제를 찾아 나서거나 아이디어를 완성해 냅니다. 나머지 10프로의 사진들만이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로 가서 눈앞에 있는 대상을 물끄러미 바라본 결과물이지요.”<sup>20)</sup> 라고 했다. 우리도 물끄러미 바라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산성동 기록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기획해서 그에 맞는 사진들을 일정량 이상 생산해 내는 방식에서는 멀어지기로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공공 기록물을 생산하려는 청년들에게 본격적인 노동을 강요하지 않고 사진 기록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간을 최대한 느끼고, 그때 일어난 감정에 따라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20) <필립 퍼키스와의 대화> 33쪽, 필립 퍼키스 외 2인 공저, 안목 출판

#### 4. 장소를 만드는 전시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 때,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그곳은 장소로 발전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의 사진전들도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마을의 기록을 마을에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록의 대상(주민과 공간)이 기록의 평가자가 되는 것은 기록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관, 상가 건물에서 작은 전시를 열었던 것은 마을의 중심지에 기록 과정을 공개해서 평가받는다라는 의도도 있다. 기록의 폭력성을 최대한 뺀 기록물들은 중첩된 기억이 되어 공간을 장소로 바꾸고, 장소의 성격을 바꾼다.

문제는 종합 전시였다. 성남꿈꾸는예술터는 영성여중에서 모습을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곳이다. 아직은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서의 ‘경험과 감정’이 열은 공간이다. 공간적으로는 생활권 단위인 산성동 안에 있고 기능적으로는 행정 구역 단위인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마을 생활권 안에는 없지만 아주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닌, 혼란스러운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 산성동의 상징을 들이는 방식으로 전시 공간을 기획했다. 산성동 주택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전시 구성을 했다. 광주대단지 시절 20평 군용 천막에서 단층집, 지층을 가진 이층집, 15평 주택 두 개를 합쳐 올린 5층 빌라까지, 삼각기둥과 육면체로 단순화한 나무 조형물을 만들었다. 20평 주택 기준으로 주택 부지 한 변은 약 8미터이다. 주택 조형물의 한 변은 1미터로 실제 길이의 1/8 축적으로 계산했다. 주택 모형을 만드는 데는 산성마을지기단의 이영성 단장의 도움이 컸다.

산성동의 장소성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다. 산성동이었던, 여전히 산성동이기도 한 공간이다. 조형물은 산성동의 기억을 담았다. 그래서 그곳은 산성동이라는 장소가 되었다.

#### 5. 지금, 우리를 위한 사진

기록 사진이지만 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기록한 사진은 아니다. 우선 기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다. 자기의 느낌을 믿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찾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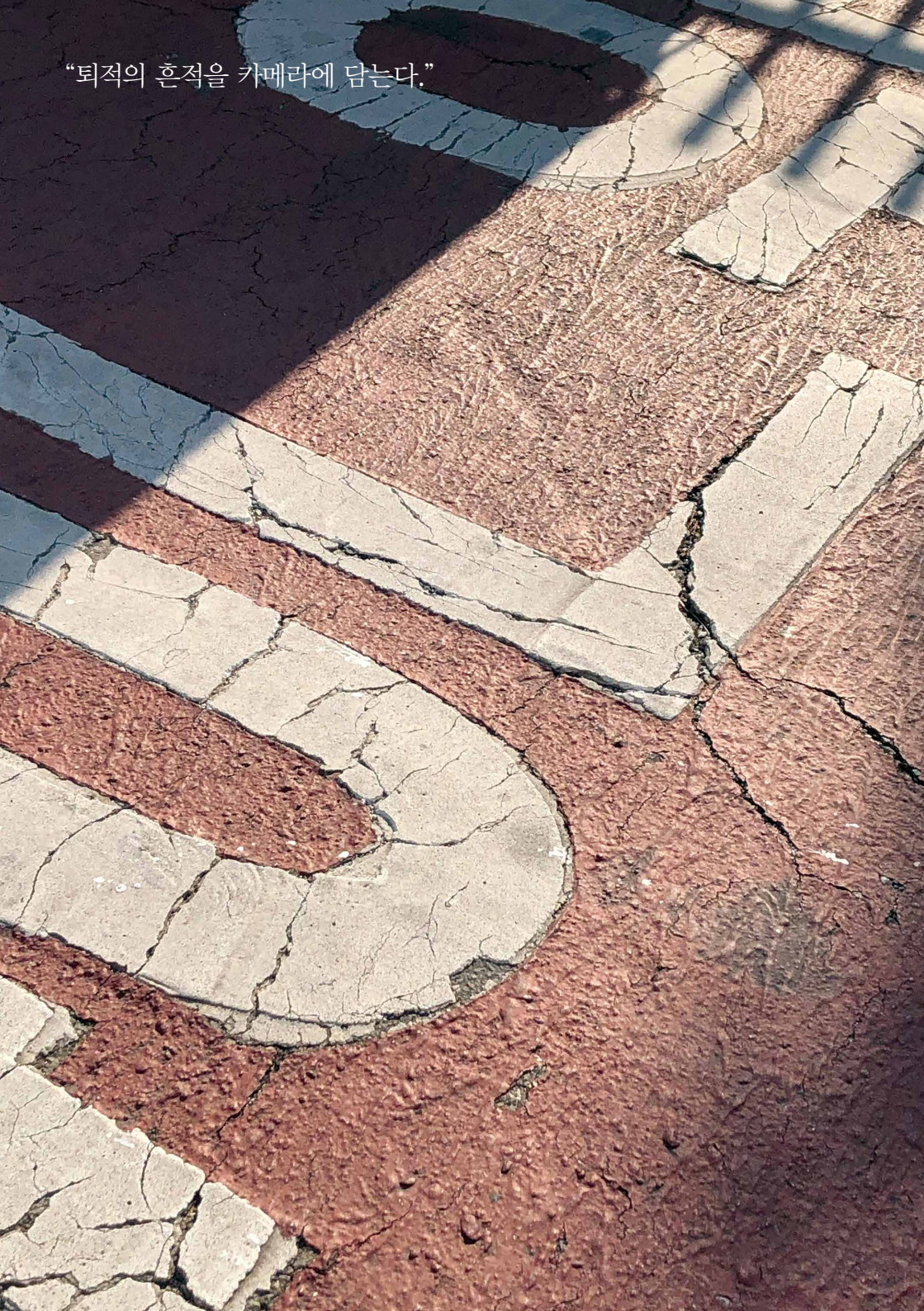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한 사진들도 아니다. 기획 과정에서 욕심을 내 보기도 했지만, 첫 번째 리뷰 시간에 그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바라보는 과정을 즐기려고 애쓴 작업이었다.

전시는 현재의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마을에서의 전시가 기억을 겹쳐서 산성동 전체 공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려 했다면, 성남꿈꾸는예술터 전시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했다. 모두 지금 산성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시다. 비폭력 기록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지금 자기에게 솔직하면 평화롭게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별일 없어 보였던 단체 작업이었지만, 꽤나 아슬아슬한 과정이었다. 지금의 나를 위한 사진까지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한 사진으로 확장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10명의 청년들은 그걸 해낸 것 같다.





“퇴적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는다.”





“너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를 고통받는 울음소리.”

이문 열구 나무도막 갖다  
 놓는 이는 개판도 못한 놈이  
 다 벌이다

치즈떡볶이 2  
 감자튀김 마늘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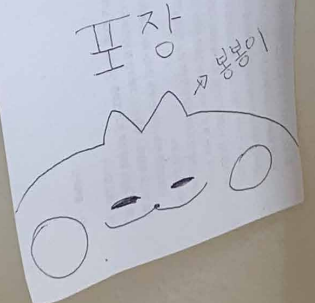
♡ 2  
 치즈 2  
 감자튀김  
 1500



감자튀김 5000  
 치즈떡볶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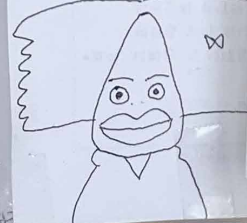
치즈떡볶이 2  
 감자튀김 마늘  
 알마보 소 2



알마보 소 3  
 감자튀김 마늘맛 2  
 수박  
 치즈떡볶이



치즈떡볶이 3500  
 감자튀김(요거트) 1000  
 컴밥 (베이컨), 감자참치, 감  
 알마보, 순대, 닭꼬치,  
 치즈떡볶이  
 나만입니다 Gentus의 정감



알마보 소 3  
 치즈떡볶이  
 닭꼬치 2  
 감자튀김 2  
 콜리진 11500



콜리진 2  
 치즈떡볶이 1000  
 당꼬치 1500  
 감자튀김 마늘 1000  
 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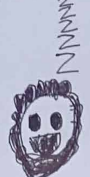


치즈떡볶이 1000 T  
 감자튀김 마늘 T  
 알마보 소 T  
 당꼬치

포장

♡이억분식♡

지사님 감사  
 합니다



“ 오래간만에 와서 둘러보니 고3 때로 돌아간 느낌이였다.”



97  
PC 16  
96

“전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주민들의 모습 같았다.”

성남시 가평 가평  
경기도 광주시 조곡가도  
0311751-0045

“산성동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많이 남겨두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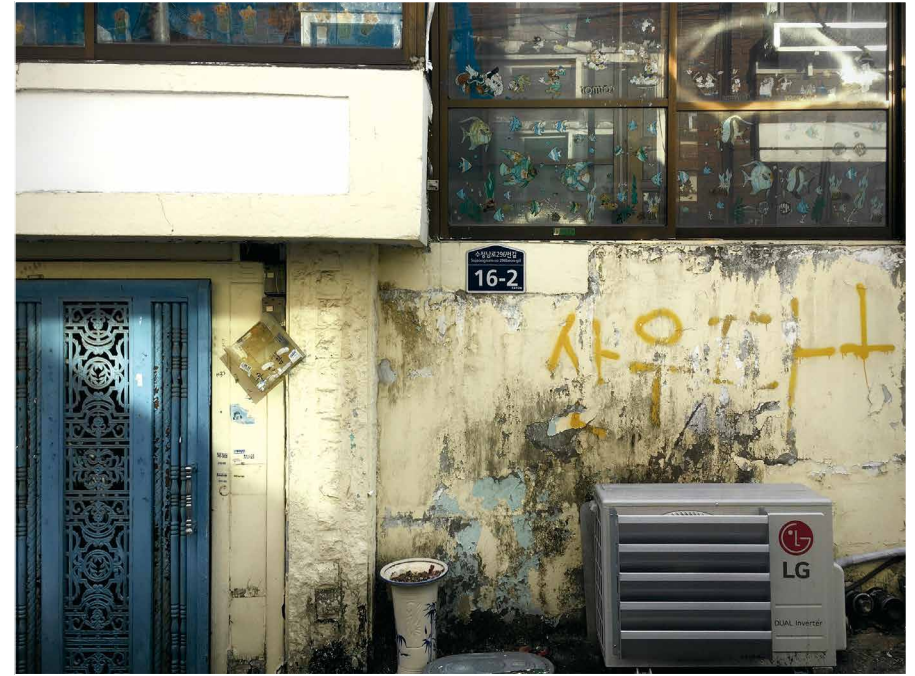


“의미의 부재는 무더짐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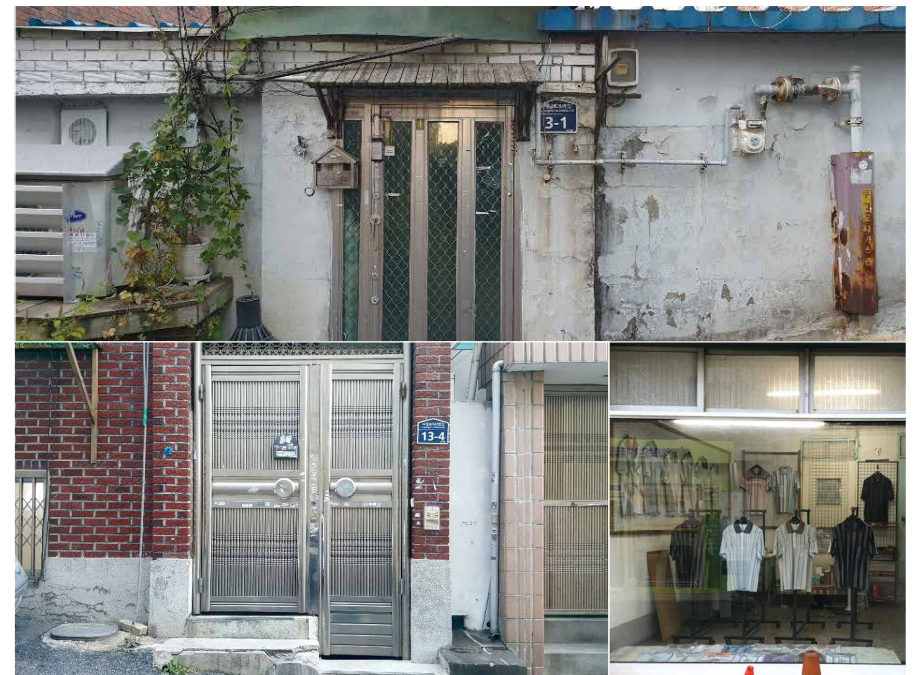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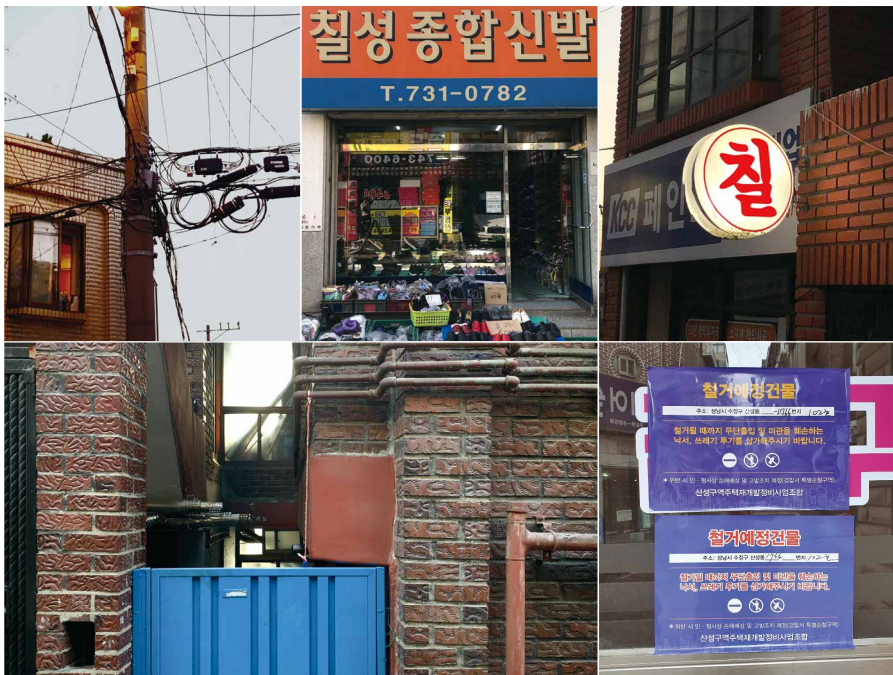
山中安  
公白金板  
二十一年八月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옛것 보다 새것을 더 찾는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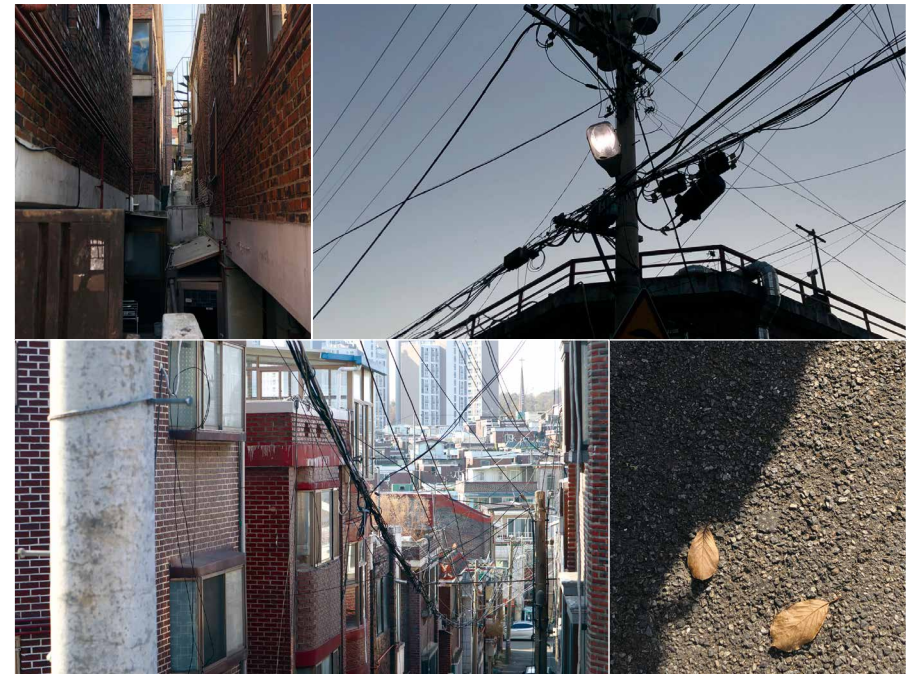




“기록 사진을 위해 산성동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촬영하면서 공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산	성	등
--	--	--	---	---	---

			연	대	기
--	--	--	---	---	---

1970년대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1971. 8. 10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1974년 겨울  
현 산성파출소 뒤쪽은 아직  
미분양지 상태이다.  
이영성



1973.  
성남시 승격  
(단대동 + 창곡동)

1976.  
성남직업훈련원 설립  
(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1974년 겨울  
파출소 뒤쪽은 아직  
미분양지 상태  
군인의 패기도  
한겨울 추위에 움츠러든다.  
이영성



1977.  
단대협동새마을금고 창립

1979.  
창곡중, 창곡여중 개교

1975년  
전주약국 개업  
송순애



1979년 2월  
출국동기 100일 기념 나들이  
BASRA 시내 SIMD BAD PARK  
이영성



산성동 골목풍경



1978년  
명동사진관 앞  
문동균



1978년 4월  
예비군 교육 후 전주약국 앞에서  
문동균

1980년대

1982.  
성남북초 개교

1982년 10월  
신접 살림살이의 새덕  
산성동 689-690번지  
정재민



1983.  
단대1동에서 단대4동으로 분동

1980년  
성남직업훈련원  
(한국폴리텍대학) 앞  
정재민



1985.  
영성여중 개교

1980년  
성남직업훈련원 옆 도로  
(현 수정로 산성역-남한산성간 도로)  
정재민



1986.  
약진로 개통(현 현릉로)

1988.  
한성정(국궁장) 개관

1982년 9월  
결혼식 기념사진  
이영성



1988.  
상하수도 골목 도로포장

1989.  
산성동으로 명칭 변경



1985년 4월  
산성동 929번지 성인약국 사거리 모습  
(현 CU편의점 / 보금당 옆)  
이영성



1985년 5월  
가내골(북정동) 새마을지도자  
모내기작업



1985년  
영성여자중학교(현 성남꿈꾸는예술터)  
맞은편 건립 중인  
신흥주공아파트가 보인다.



1987년 2월  
북초등학교 제3회 졸업식  
'부모님께 효도, 나라에 충성'

1994.

산성동 복지회관 개관  
성남직업훈련원  
성남기능대학 승격  
단대공원 개장

1990년경  
아낙네들의 부업  
수박망 엮기  
이영성의 지인



1995.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

1996.

산성역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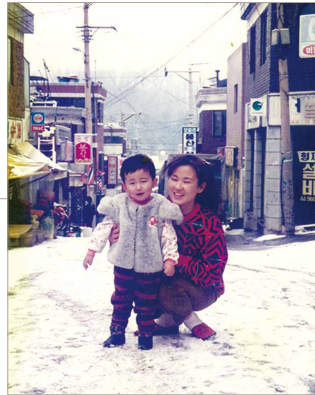
1994년  
사이좋은 올케와 시누이  
다정하게 시민비디오가게  
(산성동 401번지, 현 하늘마트) 앞에서  
이현미



1998.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96년경  
아들과 함께 하늘마트 앞에서  
이현미



2000.

산성동 주민센터 개설  
수정도서관 개관

2000년경  
산성동 생활체육 배구팀  
정수경



2005.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2002년  
산성 소공원  
(현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자리)  
정수경



2007.

산성동 주민센터 신축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성남기능대학) 명칭 변경

2008.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14.  
산성 실내 배드민턴장 개장

2018년  
산성마을지기단 발대식



2017.  
창성중 개교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3개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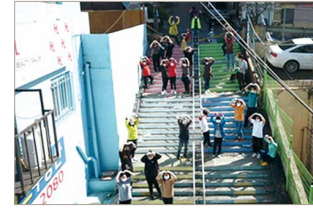
2019년  
산성마을지기단 영화제



2020년  
산성마을지기단  
유아분과 골목놀이



2020년 8월  
다큐멘터리 <난장이 마을>  
상영회



2020년  
산성마을지기단  
산성동 벽화그리기



2020년 11월  
김장 담그기

2020.  
산성재개발구역 관리처분 인가  
꿈꾸는예술터, 몽실학교 개관



# 산성동

## 개요

산성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세대 수 등은 조사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산성동은 성남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마을의 서쪽으로 수정로(6차선)와 접해 있고, 수정로를 마주하고 2020년 입주를 마친 포레스티아 아파트가 있다. 북서쪽으로 서울 ~ 성남 간 연결도로인 한릉로가 있어 위례신도시, 송파구와 바로 연결되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있어 교통이 좋다.

마을 안에 수정도서관, 성남북초등학교, 창성중학교,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등이 있고, 2020년에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건립 운영하는 성남몽실학교, 성남문화재단이 건립 운영하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가 개관하는 등 교육 환경 입지가 뛰어나다. 또한 단대공원과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도 뛰어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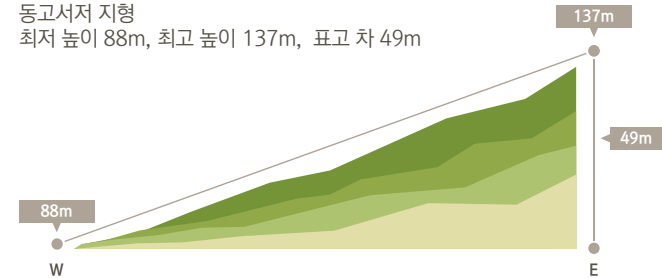


## 지리적 여건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자락의 서남쪽 비탈면을 차지하고 있어 지대가 높은 동서 방향 능선으로 한 구릉지 지형이다.

### 표고 분석

동고서저 지형  
최저 높이 88m, 최고 높이 137m, 표고 차 4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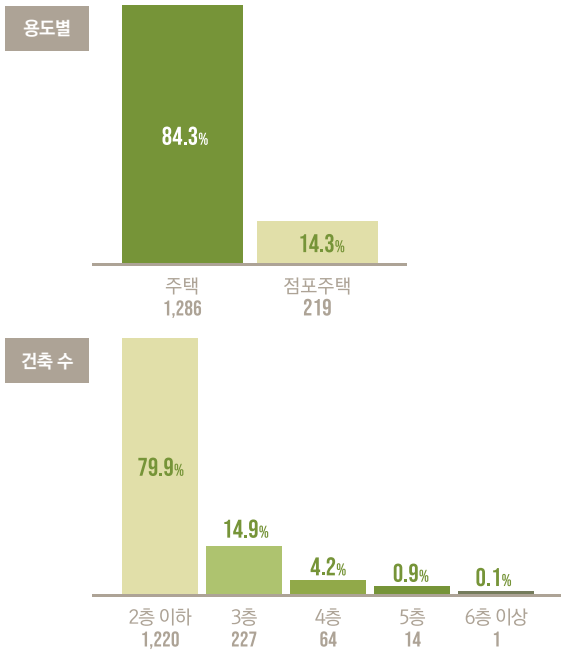
### 경사 분석

경사도	비율	비고
10도 미만	52.5%	
10~30도	43.1%	
30도 이상	4.4%	옹벽 및 녹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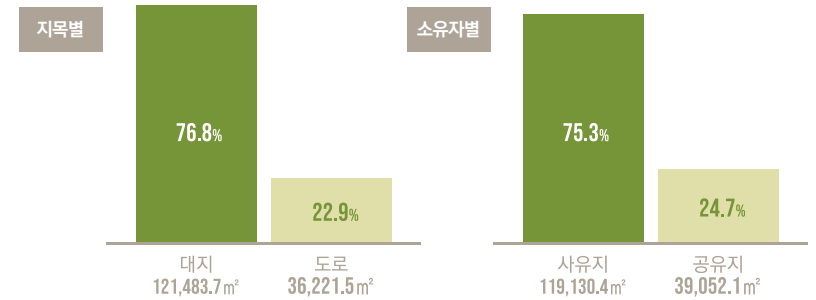
## 산성재개발 구역

- 위치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원
- 면적 158,023㎡
- 용도지역 / 지구 제3종 일반주거 / 일반 미관지구
- 세대 수 4,657세대 (10,891명)
- 인구밀도 689.2인/ha
- 토지 1,670필지
- 건축물 1,520동

## 기존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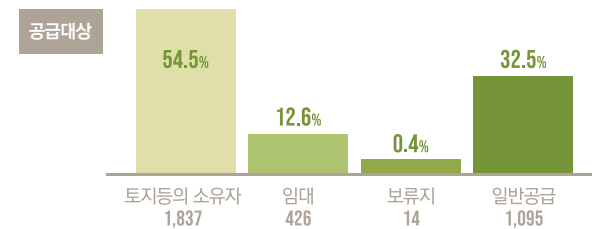


## 토지 현황



## 재개발 후 공동주택 현황

- 총 43개동 (지상 5층 ~ 29층, 29㎡ ~ 99㎡)
- 3,372 세대







2020 마을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II \_ 지금 여기 성남

## 산성동 이야기

발행인	노재천
편집인	최현희
발행일	2020. 12.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a href="http://www.snmedia.or.kr">www.snmedia.or.kr</a>
홈페이지	

기획/편집	윤혜숙
섭외/진행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박혜인, 이경선
글	박성진, 이은숙, 김동현
사진	배진환
드로잉	윤정
항공촬영	김형빈, 안덕영, 전철기
디자인	제이드컴

## 지금 여기 성남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  
성남의 일상을 시민의 눈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